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15일)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5월 15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께 헌등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불자 의무"

조계사 등 전국 사찰, 5월 15일 봉축법요식

종정 성파대종사 직접 법어 내려
진우 스님, '선명상 보급' 약속해
윤석열 대통령 연속 2년째 참석
尹 "선명상,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5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기흥 리더스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에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대통령이 2년 연이어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준비된 원고 대신 즉석에서 설한 봉축 법어를 통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달아 각자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화합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각자의 마음 등불을 켜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 이 세상을 밝게 해야 한다"면서 "이 자리의 사부대중과 불자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깊이 명심하시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임무"이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의 개혁일 것"이라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의 영역을 계발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불교의 전통인 조사(祖師) 화두선(話頭禪)에 기반해 현대적 명상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하고 세계 정신문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가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장애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 각 2인을 초청했다. 장애인 대표로는 이종희·김인애 씨가, 이주민 대표로는 이명희(베트남)·아키야마 쓰카코(일본) 씨가 헌화했다.

이와 함께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8년 불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최영철(작곡가), 고광록(변호사), 구본길(펜싱선수), 임혁(배우), 김동준(가수·배우) 씨가 선정·수상했다. 구본길 선수는 훈련 일정 관계로 어머니가 대신 수상했다.

현대불교 창간 30주년 기념 공동캠페인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소녀에게 응원을

"생리대 나눔 후원으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본지-다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후원 캠페인 MOU

다나, 생리대 후원 사업 진행
본지, 사업 홍보 · 확대 동참

창간 30돌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혜도 스님, 이하 본지)가 (사)다나(이사장 탄경 스님, 이하 다나)와 함께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나눔 지원 사업을 펼친다.

본지와 다나는 5월 14일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 사업-소녀에게 응원을' 공동 캠페인을 진행키로 협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을 절감한 다나는 오래 전부터 창원·진주 지역 아동센터에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왔다.

소외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 '생리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이 비치되면서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지원되기 시작됐다.

2021년 4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대상 선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보편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적지 않은 종교 및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 중 불교단체는 '다나'가 유일하다.

다나 이사장 탄경 스님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을 보면 한국은 개당 331원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 캐나다 202원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서 "통계를 보니 서울시 여성청소년 중 '월경용품 구입을 비싸서 망설인 적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진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100가구 정도에서 사용할 물품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은 "묵묵히 노숙자 무료 급식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나눔, 국제 구호를 펼쳐 온 다나의 자비행에 깊이 공감해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본지 기사를 통해 다나의 자비 나눔 사업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다나 이사장 탄경 스님과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이 5월 14일 협약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하안거 결제 법어 8면

봉축휴가 관계로 다음 주는 휴간합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992쪽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구산선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시는 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택배비 수신자 부담)

〈태고화상어록〉은 불교 배척 운동의 핵심 인물인 이색과 정몽주가 서문과 발문을 쓴 책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확철대오한 선법문은 다 걸러지고 대신들에게 지어준 당호에 쓴 송(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선 대원선사님께서 그 송들 속에 스며있는 태고 보우국사의 깨달음의 경지를 도움말로 드러내어 본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신청 문의 010-3880-8980 (증연스님)

도서출판 문젠



〈해동전등록〉 결집을 위한 '구산선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청합니다

농선 대원선사님께서는 전등록 30권, 선문염송 30권, 화엄경 81권을 역경한 혜안으로 90의 연세에 이생 마지막 서원인 한국의 〈해동전등록〉을 편찬하고자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맥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 의해 해동 신라로 전해져 구산선문으로 계승되었고, 57조 태고 보우국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중국 선사상에 못지않은 우리 해동의 선풍이 지금 결집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농선 대원선사님께서는 "〈해동전등록〉은 내 개인만의 소원이 아니고 한국 불자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써내고자 하니 자료만 찾아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불제자님들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한국의 미래 불교를 위해서 번역본이나 원본을 보내주시거나 , 법어록의 제목이나 소장하는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이 거룩한 불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신청 문의 010-8670-1445 (문젠 출판 교무부)

뉴진 스님에 MZ세대 열광…연등회 대미 장식

관서현보살·뉴진스님 EDM에 국적 넘어 모든 청년들 열광
비보잉, 연희단 공연도 호응

올 연등회, 연등놀이 끝으로 화려한 막 내리고 내년 기약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불교 EDM 디제잉 공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을 이겨내! 극락왕생!"

올해 연등회는 끝까지 MZ세대를 열광케 했다. 서울 공평사거리를 가득 메운 MZ세대와 관람객들은 상월비보이 공연을 끊임없이 스마트폰에 담고, 각 사찰 연희단과 율동단의 몸짓에 어깨를 들썩였다. 연등놀이의 백미는 단연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화끈한 불교 EDM(Electronic Dance Music) 디제잉 공연. 뉴진 스님의 춤과 디제잉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모두 손을 높게 들어 올리며 환희로움을 보였다.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된 연등회가 5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공평사거리에 열린 연등놀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을 기약했다. 연등회 개최 전부터 뜨거웠던 MZ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연등회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전날 우중으로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신심을 이날 모조리 터뜨리겠다는 듯 MZ세대는 열정적으로 연등놀이 공연을 즐겼다.

연등놀이의 시작은 전날 장엄한 연등행렬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인사동 연등행렬이 알렸다. 안국동사거리에서 출발한 연등행렬은 인사동 골목을 지나며 다시 한 번 불자와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심을 알렸다.

한 시민은 "어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연등행렬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짧게라도 연등행렬을 볼 수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말하며 연등행렬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연등행렬 이후 본격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상월비보이들은 부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심을 마음껏 춤으로 표현했고 그 열기를 고스란히 각 사찰 연희단과 연등회 프렌즈가 이어받으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그 다음은 화끈한 EDM 난장이 펼쳐지면서 모든 MZ세대들을 열광케 했다. 관서현보살(가수 서현진)은 아름다운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창했다. 이에 대중은 큰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따라 외치며 불교 EDM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다.

뉴진 스님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MZ세대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한껏 기대감에 들떠있던 대중은 뉴진 스님의 디제잉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겨운 EDM 가락에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탔고 공연 중간에 환호성을 내지르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뉴진 스님은 공연 중간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라며 "우리 모두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곳곳에서 '재밌는 불교' 공연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들이 하늘높이 뻗어졌고 공연 막바지에는 '앙코르'를 외치며 불교 EDM에 큰 호응을 보였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호응했던 대학생 김민준 씨(21)는 "뉴진 스님을 보러 왔다"고 밝히며 "SNS에서 본 것보다 더 신나고 재밌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아 부처님이 되기 위한 종교라는 뉴진 스님의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태고종, 봉축법요식…"자타불이 잊지 말아야"

5월 15일, 양주 청련사서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
불자청소년 5명에 장학금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사회 곳곳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했다. 5월 15일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청련사 조실 해경 스님, 청련사 주지대행 심곡 스님 등 청련사 대중스님과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역무비(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世間所有我盡見) 일체무유여불자(一切無有如佛者)'라는 부처님 탄생을 축원하는 게송을 읊으며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최고란 뜻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처럼 내가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으면, 나부터 남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또 보리심을 일구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화엄경〉에 보면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듯 법당에 찾아와 등불을 밝히는 불자들이 없으면 거룩한 부처님이 계셔도 빛이 나지 않는다"며 "오늘 여러분이 밝힌 등 덕분에 나뿐 아니라 모두가 환희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복전을 잘 일궈 자비광명을 밝힌 공덕으로 늘 행복하고 즐겁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진 스님은 이날 불자 청소년 5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에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부처님오신날 표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다. 양주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미래 청사진 실현에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길 재차 다짐했다. 끝으로 참석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부처님의 몸을 물로 씻는 관불의식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의미를 되새겼다.

양주=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 '가교 역할' 주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임 시민사회수석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10일 취임한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대통령실과 종교계·시민사회 간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5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직책을 맡은 이상 여러 방면에서 살필 게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님은 또한 "어렵지 않은 시절 없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어려운 시대"라며 "시민사회수석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과 조언대로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유산 체계 재정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통합적 관리 시스템

'종교유산협력관' 신설 소통 강조
불교계 종단 축하 메시지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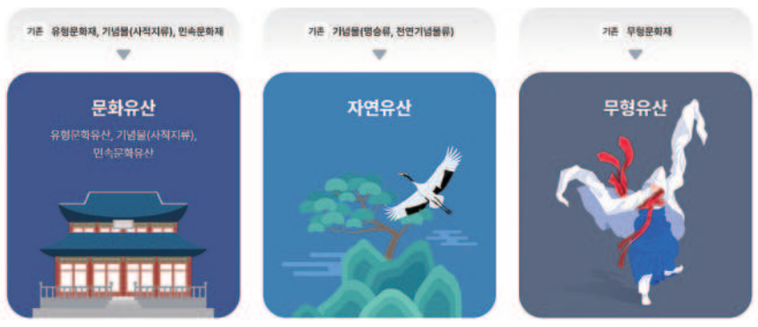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재청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그동안 널리 쓰인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됐다. 대한민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관리해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기존 조직을 전면 정비했다.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앞으로는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 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둬 1관 4국 24과 1단 5팀 형태로 운영한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책·조직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산정책국 아래 '종교유산협력관' 자리가 신설됐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와 관련한 유산을 다룰 때 소통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로, 전문임기제 형태로 1명씩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의 유산별 분류. 문화재청 누리집 갈무리

조계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 명의로 국가유산청 출범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고 무궁한 발전을 기대했다. 조계종은 "국가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창의성의 원천이며, 미래세대에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국가유산청 출범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유형·무형·자연유산과 이들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을 함께 전승하고 보존해 나가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유산청의 개청과 국가유산 체제의 정립을 통해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를 온 국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조계종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우리 문화를 꽃피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논평을 내고 "이번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불교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불교·문화 정책 확장, 국가유산 가치의 전승 및 활용·진흥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태고종은 수많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켜낸 불교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인 불교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 보존·전승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태고종은 전통사찰 및 유·무형 불교문화유산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불교문화와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도 국가유산청 개청을 천태종 250만 종도와 함께 축하하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계가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계승 발전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환되는 '국가유산' 체계에 발맞춰 불자들과 국민들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목우암 삼존상' 등 '성보 유산' 보물된다

영산회상도 · 지장시왕도 등 5건
5월 10일 각각 보물 지정예고
"화승 예술성 · 인쇄술 중요 자료"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 고려시대 경전 등 문화재 5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0일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등 불교 문화재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으로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5월 10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본존불의 규모가 186㎝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斗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돼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해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는 게 국가유산청 설명이다. 임은호 기자

북유럽 스웨덴 닿은 한국 전통 불교문화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서 불교문화 사진전 개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이 북유럽 스웨덴까지 닿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5월 7일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로비에서 '한국전통불교문화 사진전' 개막식을 열었다. 사진전은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 전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전은 28일까지 진행된다.〈사진〉

사진전에는 '길 위의 수행자'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3가지 주제로, 5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사진전은 스웨덴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첫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주제 '길 위의 수행자'에는 새벽 도량석 모습을 시작으로, 묵묵히 참나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선 수행자들, 1700년 한국불교 맥을 이어가는 수행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다. 2주제 '템플스테이'는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지구촌 참가자들 모습과 아름다운 산사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3주제인 '사찰음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발우공양의 상차림,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과 전통 공양간이 담겼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진전에서 만나게 될 한국의 사찰 모습은 과거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공간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며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서 수행하며 1700년 불교전통의 맥을 잇는 스님들의 모습, 사찰에서 일상을 보내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소 낯설지만 벅찬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남은당 현봉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에 대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을 불기2568년 5월 5일(음력3월27일) 송광사에서 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찾아 주신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해 제방의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좌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지면으로 감사인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8년 5월 5일(음력 3월 27일)

총림문도 : 수좌 현묵 유나 범종 선원장 영선 주지 무자

도제(상좌) : 연체 연수 연각 상우 무안 무영 무량 삼도 일웅 일문 일주 자홍 혜장 지우 마천

손 상 좌 : 자륜 도우 도성 도하 능원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49재 일정

초재	5월 7일	(음3.29)	오전 10시	화요일
2 재	5월 14일	(음 4.7)	오전 10시	화요일
3 재	5월 21일	(음4.14)	오전 10시	화요일
4 재	5월 28일	(음4.21)	오전 10시	화요일
5 재	6월 4일	(음4.28)	오전 10시	화요일
6 재	6월 11일	(음 5.6)	오전 10시	화요일
7 재	6월 18일	(음5.13)	오전 10시	화요일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문의 061-755-0107

“맛있게 드시고 부처님 가피도 받아 가세요”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다나 회장 탄경 스님과 쪽방촌도우미봉사회 회장 김윤석 경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나, 5월 9일 영등포 쪽방촌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 실천
영양식 공양 · 물품 선물 이어
연등 전달하며 취약계층 위로

“영양식 맛있게 드시고 부처님 가피도 함께 받아 가세요.”

국그릇과 밥공기가 가득 올려진 쟁반을 번쩍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직접 나눠주던 탄경 스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단법인 다나(회장 탄경 스님)는 5월 9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쪽방도우미봉사회(회장 김윤석)와 함께 ‘쪽방주민 부처님오신날 영양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평소 이곳에서는 쪽방도우미봉사단이 매주 목요일 점심마다 국수 공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코앞에 둔 만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이날 만큼은 불교계가 후원에 나섰다. 다나와 함께 조계종, 한마음선원, 불국사, 달마사 등 사찰들이 후원한 덕분에 쪽방촌 어르신들은 다가올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영양식을 넉넉히 공양할 수 있었다.

이날 영양식 공양을 받은 어르신들도 입을 모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 어르신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준비해 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나눈 탄경 스님은 곧 자리를 옮겨 선물을 실은 트럭 옆에 섰다. 마스크, 관절약, 컵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품선물 600개가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이날은 특히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쪽방도우미봉사단이 직접 만든 연등도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에 선물을 나눠주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단호함을 보이며 질서를 바로잡았다. 탄경 스님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어르신들의 심성이 악한 것이 아니다. 모두 절박한 심정이다 보니 마음이 앞서는 것”이라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이따금씩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비된 선물이 동이 나는 데는 불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봉사활동이 마무리될 무렵에서야 한숨 돌린 탄경 스님은 그동안 봉사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술회했다. 스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절박함”이라며 “우리 근처에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은데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던 탄경 스님은 “취약계층의 삶과 자원봉사자들의 고생을 보면 볼수록 수행자로서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법을 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중생들의 고통 구제가 선행 돼야 한다. 오늘 나눈 영양식 한 그릇이 모두 전법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를 창단하고 30년 동안 이끌고있는 김윤석 마포경찰서 경감은 어느덧 정년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90년대 상암 소년촌 고아원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김 경감은 “내가 조금 고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도 없다”며 “정년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밥·빠에야 보다 사찰음식이 더 맛나요”

5월 19일, ‘성북세계음식축제’서
사찰음식, 한국대표음식으로 참여
뻥튀기 용기로 쓰레기 최소화도

“빠에야(스페인 대표 음식)와 케밥(튀르키예 대표 음식) 맛보러 왔다가 사찰음식에 푹 빠졌어요!”

5월 19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 일대에서 개최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에서 사찰음식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원더풀”이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성북로에 모인 시민들은 사찰음식을 한입 먹어보고 “왜 사찰음식이 한국 대표 음식으로 축제에 참가하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해마다 약 5만명이 방문하는 서울 대표 축제다. 각 나라 대사관 요리사 선보이는 ‘세계음식요리사’ 부스를 돌며 세계 미식여행을 성북동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입소문이 났다.

행사에는 ‘모두가 살아가는 맛’을 슬로건으로 4대륙 19개국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사찰음식이 세계 대표음식들과 어깨를 당당히 해 눈길을 끌었다.

2개 부스로 마련된 사찰음식 코너는 성북구사암연합회의 주도로 오이만두, 나물전, 청국장김말이, 버섯양념튀김, 가지새싹 말이, 연입밥 등이 선보였다. 게다가 뻥튀기 용기를 활용해 일회용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음식을 맛본 시민들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북동 주민 한선희 씨는 “여러나라의 부스를 찬찬히 살펴 보고 정갈한 음식에 눈길이 가 사찰음식을 선택했다”면서 “과하지 않은 양념에도 훌륭한 맛을 내는 것이 신기해 스님들에게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월 19일 개최된 성북세계음식축제에 동참한 사찰음식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의 정갈함은 외국인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다. 미국인 지나 씨는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모든 생명의 조화와 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겼다는 사찰음식의 소개가 인상 깊다”면서 “특히 뻥튀기를 용기를 활용, 축제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나 나오지 않은 것은 불교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인 헤이케 씨는 “신선한 재료들에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것이 놀랍다”면서 “한국 음식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사찰음식도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월암 주지 혜범 스님은 “선도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 방문객에게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누리마실의 지향점을 적극 응원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구성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많은 이가 전통사찰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해 기쁘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토함산 산사태에 ‘세계유산 석굴암’ 위험

녹색연합 “시한폭탄 안은 상황”
불국사도 초기 위협 징후 진행
정부 “7억 투입…장마 전 완료”


토함산 석굴암 150m 상단 산사태 발생 현장. 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해 문화재 보호에 주의가 요망된다. 녹색연합은 5월 13일 ‘경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연합이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는 해발 400~700m 사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산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토양과 구곡 침식이 보이는 곳도 5개소 이상이다. 피해를 입은 훼손 현장은 토양 봉락, 침식, 낙석, 수목 전도 등 산사태의 여러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산사태로 위험은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도 피해갈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굴암 위쪽도 산사태가 2개소 발생한 상태로, 현재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에서 “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석굴암 입구 주차장 2개소도 산사태 현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가 복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장 주변의 산사태는 22년 9월 발생했지만 복구는 커녕 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 녹색연합은 “산사태가 발생한 주차장 옆 카페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아래에 참샘골이 있고 그 밑에 범곡리 마을이 있어 산사태 피해가 마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구가 시급하다”면서 “세계유산과 국보 등 문화유산이라고 피해가 제외되지 않는다. 폭우와 강우 때 탐방객의 통제는 물론, 스님과 사찰 관리인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피체계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불국사 역시 경내를 위협하는 산사태 초기 징후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큰 비가 오면 불국사 경내로 이어지는 계곡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국가유산청은 5월 13일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해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했다”면서 “낙석방지방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이 땅 민주화 이뤄낸 5 · 18 정신 우리가 잇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와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7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는 동시에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김내영 기자



100년 만의 사리 환수…불교·정부 협력 '결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회암사지서 사리 이운 행사

해외 반출된 후 100년 만에
3여래 2조사 사리 '환지본처'
대통령 부부 참석, 함께 축하

진우 스님 취임 600일 기념도
500여 청년들과 108배 정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3여래 2조사 사리 이운 후 부처님 전에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다.

양주=윤호섭, 김내영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부처님과 선사들의 사리가 10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4월 18일 보스턴미술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3여래 2조사 사리(가섭여래·정광여래·석가여래·지공 선사·나옹 선사)가 원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온 것.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5월 19일 양주 회암사지 일원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 삼대화상은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중흥의 꽃을 피운 지공·나옹·무학 스님을 의미한다. 다례재는 사리의 환지본처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 6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봉선사 대중은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특설무대에 설치된 법단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사리를 이운했다. 100년 만의 경사지만 예경의 대상인 사리를 이운하는 만큼 호산 스님의 얼굴에는 경건함이 가득했다. 행사의 격에 맞춰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직접 신중작법을 올렸다.

이운을 마친 뒤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대학생·청소년 500여 명이 무대 앞에서 함께 108배 정진에 나섰다. 총무원장 취임 첫날부터 매일 108배 정진을 하며 청년세대와 소통해온 진우 스님의 취임 600일을 맞아 기념비적인 행사가 더해진 것. 진우 스님과 500여 청년세대의 합동 108배 정진은 처음이다. 특히 108배 정진에는 신심 깊은 불자로 잘 알려진 이상호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법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에도 진우 스님과 청년세대는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따라 불교중흥을 염원하며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다.

이어 펼쳐진 삼대화상 다례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리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보스턴미술관과의 사리구 반환 협상은 4차까지 이어졌지만 2013년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하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보스턴미술관이 지난 2월 성물인 사리는 조계종에 기증하고, 사리구는 국가유산청이 대여해 전시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불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큰 환수불사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환수를 이끈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잠시 외유를 하셨다 돌아오신 3여래 2조사의 불조사리를 오늘 비로소 사부대중과 함께 장엄하고 거룩하게 봉안할 수 있어서 정말 환희롭고 환희롭다"며 "이 벅찬 감동을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화경〉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공·나옹 선사와 회암사의 의미를 짚은 진우 스님은 사리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를 '공덕주'라고 표현하고 회암사지 복원불사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영부인께서 사리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첨병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곳 회암사에 세계적인 선명상센터를 건립하여 회암사 역사유물 관람과 함께 한국의 선명상을 체험하게 하여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찾게 되는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불조사리가 돌아온 것에 기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힘들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 봉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증명법사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부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무엇보다 사리 반환 논의 재개의 물꼬를 튼 김건희 여사를 '대(大)공덕주'로 상찬하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다례재에서 사부대중은 법단에 108잔의 차공양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며 불교중흥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선조들의 원력을 기렸다. 또 장사익과 JH콰이어의 축가, 청년세대를 위한 상월합창단과 상월 비보이 이에이트, 래퍼 슈퍼비의 문화공연을 펼쳐 불조사리의 환지본처를 축하했다.

다례재에는 두산 일면 대종사를 비롯한 조계종 원로위원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양주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강수현 양주시장 등 사부대중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조사리를 법단으로 이운하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대중.



행사장에 들어서는 진우 스님과 대통령 부부. 사리 환수는 정부와 불교계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취임 후 매일 108배 정진을 하는 진우 스님은 이날 회암사지에서 108배를 올렸다.



대학생 · 청소년 불자 500여 명은 진우 스님을 따라 108배 정진에 동참했다.



다례재에는 사부대중 40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할인가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할인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한국불교 중흥, ‘생활 불교’에 있다”

부산불교실업인회 봉축법요식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 법사로
한국불교 중흥 위한 과제 짚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이 부산실업인회 봉축법요식서 법문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 열쇠는 불교의 무한한 보고(寶庫)를 활용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깨달음과 도를 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 불교를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이 한국불교 중흥의 해답은 ‘생활 불교’라고 강조하며 주경야선, 가행정진, 주말출가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가 5월 10일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에서 봉행한 봉축법요식에서다. 초청법사로 법문을 설한 김원수 법사는 자신의 인생 역경을 해결한 불교와의 만남을 설명하며 미래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원수 법사는 “80년 전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 정신과 신체 모두 허약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 만난 분이 백성욱 박사셨다”며 “그 덕에 인간 불교, 생활 불교를 알았고 적용해 지금의 건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성욱 박사는 힘들고 아픈 나를 향해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하고 무엇이든 성취하도록 돕는 여의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후 4년간 출가를 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출가는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축적해서 돌아오는 것’이며 ‘사회로 돌아오는 출가’도 부처님의 보고를 경험하고 쓸 수 있는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수 법사는 자신의 불교입문 배경과 수행 과정, 그리고 이를 적용해 깨달음의 결과를 나누며 불자와 출가자 절벽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법회는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주최한 봉축 특별법회다. 현재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전국의 고승 대덕 초청 법석을 열고 있으며, 올해 봉축법요식을 맞아 ‘금강경 대가 김원수 법사 초청 특별법회’를 열었다.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뭇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밝히신 부처님오신날을 찬탄과 환희심으로 봉축한다”면서 “본회 봉축법요식 법사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원수 박사님과 바른법연구원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법사님 법문 잘 경청하시고 신행에 지침이 되시길 바란다”고 봉축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지난 1991년 결성돼 실업인 및 거사들의 모임으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청해 듣고 신행에 앞장서고 있다.

홍법사, 현충일 맞아 호국정신 계승한다

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백일장 · 사생대회 등 행사도
“호국의 숭고한 정신 기린다”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및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석을 비롯해 청소년과 함께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및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매년 주최하는 호국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봉행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을 위한 기도 및 호국 영웅(해외 참전용사) 초청 의식이 펼쳐진다. 아울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봉행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한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이며 대회 주제는 호국보훈과 나라사랑, 통일 관련으로 당일 현장 발표한다. 참가부분은 그리기, 글짓기, 서예이며 대상은 전국의 유치부, 초중고 학생 및 일반부다.

행사 당일 도화지와 원고지, 화선지는 주최 측에서 배부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당일 작품 제출 시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며 결과는 6월 24일 홈페이지(www.hoguk.org)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상은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부산시장상, 부산교육감상 등 다수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현장 확인을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까지 대회장에 입장해야 한다. 대회 개회식은 오후 1시다.

홍법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호국정신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051-508-347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봉축위문금’ 8730만원 나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5월 15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봉축위문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통도사는 이웃을 위한 위문금 총 873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과 양산 및 인근 지역 25개 사회복지시설, 하북면 경로당 독거 어르신,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군법당 등에 전달됐다.〈사진〉

주지 현덕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함께 봉축하고 기쁨과 나눔을 전할 수 있어 보람되다”며 “모두를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하루하루가 부처님오신날이자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요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승가대중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오신날, 어르신 행복하시길”

견강암, 어울림한마당 잔치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5월 15일 경내에서 ‘제3회 어르신 초청 주민어울림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어울림한마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잔치를 열어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1000여 명의 지역민이 자리한 축제에서 견강암은 중·고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20만원씩 총 120만원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모든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라며 “봉축을 맞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축제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장제원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역사회 기부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삼광사, 쌀 1만㎏ 등 자비나눔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5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삼광사는 자비의 쌀 1만㎏과 빵·음료 1만 세트를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복지시설, 저소득가정에 후원했다.〈사진〉

주지 영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두운 곳에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있고 번뇌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며 “부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 자신의 본성인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는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성국·박성훈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등산 증심사, 어린이 야단법석 펼치다

5월 12일, 어린이 행복 놀이마당 개최

댄스대회·명랑운동회 열려
부모 참여한 놀이도 '인기'
템플 체험권 등 선물 푸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년가람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에서 아이들을 위한 야단법석을 열었다.

5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증심사 어린이 행복 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아이들아, 무등산에 모이자!'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무등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뛰놀고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열린 증심사 행사 중 가장 많은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행사 2시간 동안 증심사에는 아이들의 함성과 즐거움, 행복함이 경내를 가득 메웠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증심사는 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가족들이 다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는 어린이 댄스대회로 시작했다.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10~20여 명의 아이들이 무대로 나와 춤을 추는 놀이이다. K-팝 음악 총 10곡이 무작위로 재생됐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저마다 춤을 선보여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명랑운동회에서는 '고리던지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놀이' 등이 진행됐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참여하는 놀이도 인기를 끌었다. 아버지는 '알낳기', 어머니는 '모래주머니 컬링'으로 가족 경연에 함께했다.


비누방울로 멋진 공연을 선보인 버블쇼에 아이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단연 아이들의 관심을 끈 건 매직 마술쇼와 버블쇼 공연이었다. 환상적인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특히 무대와 객석에서 이뤄진 버블쇼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크기의 공기방울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 이외에도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의 풍선 만들기, 솜사탕, 팝콘, 페이스페인팅, 물렛, 어린이 소원등 만들기, 지화연꽃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증심사에서는 아이들에게 템플스테이 가족 체험권, 어린이 소원등, 단주 등의 상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지산초등학교 이수연 어린이는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라며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어 자랑했다. 함께 온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사찰에 처음 와보는데 시설도 너무 좋고 선물도 많았다.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갖고 가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금 특별했던 정광학원 부처님오신날

5월 13일 봉축기념식…뉴진 스님 EDM 공연 '눈길'

불교 종립학교 청소년들에게 평생에 남을 특별한 봉축행사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은 5월 13일 교내 룸비니관에서 봉축기념식과 함께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정광학원 산하 정광중(교장 정겸심), 정광고(교장 영일 스님)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불교계의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 사진)'이 EDM 공연을 펼쳐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사진〉



여기에 이사장 덕문 스님이 2000여 명의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선물했고, 동문회와 지역불교계가 총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해 더욱 있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덕문 스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중 부처님이 아닌 사람은 없다.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광에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두가 부처님의 식구라는 생각으로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백련사, 고려 八국사 다례재 봉행

5월 12일, 학술대회도 개최

고려 무신정권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의 평안을 위해 결연히 일어난 백련결사의 의미를 계승하는 행사가 열렸다.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5월 12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16회 만덕산 백련사, 고려 팔국사 다례문화재'를 개최했다.〈사진〉



주지 설도 스님은 "과거 1000여 년 전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시기,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장했던 백련결사가 이곳 백련사에서 일어났다"며 "종교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결사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며 다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 여기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련사는 오후 1시부터 경내 만경루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백련결사와 백련사, 팔국사의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불교사암연 봉축탑 점등 및 방생법회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 스님, 표충사 주지)는 5월 11일 밀양시 남천강변 야외음악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밀양불교연합회장 진각 스님은 "부처님의 탄신을 맞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불교연합회 고문 진덕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이 밝혀 놓으신 진리와 자성의 법등을 이어받아 일체중생의 안락을 위해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주요 사찰들 봉축법요식 봉행

5월 15일, 금산사 · 선운사 등 청소년 불자에 장학금 전달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사찰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전북지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금산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참회의 눈을 뜨게 해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불교적 인간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데에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것만이 행복의 길"이라고 설했다.



금산사는 동국대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오후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금산사 경내에는 전통판화체험, LED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도 이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헌화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 이어 모범불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임종혁 선운사 전 신도회장과 최병철 종무실장이 수상했다. 포교원장상은 선운사 선운다회장, 조계종 24교구장상은 김애숙, 소설애 불자가 수상했다.

군산대 불교학생회 학생들에게는 선운사와 신도회가 마련한 장학금도 전달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며 "오늘 연등을 밝힌 그 마음처럼 모두가 자비스러워지기를, 좀 더 평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몸이 아프고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평안과 안락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안 마이산 탑사, 정읍 내장사. 부안 내소사 등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과 경로잔치,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聯 연등축제·시민 봉축음악회

5월 11일 마산 해양누리공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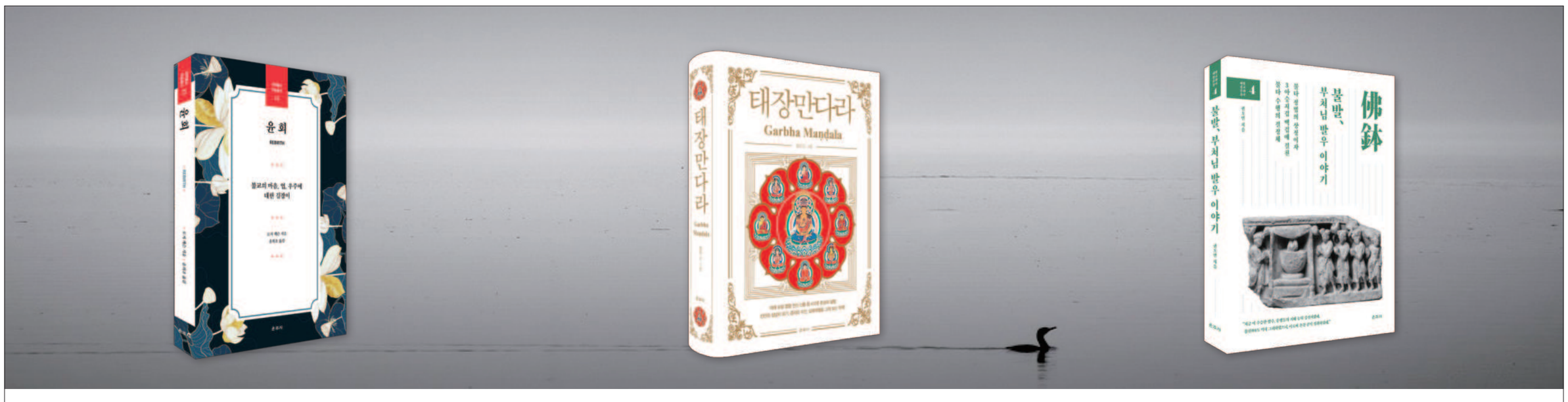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5월 11일 마산 해양누리공원에서 연등축제 및 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인사 원행 스님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봉축법어를 대독하며 "어떠한 허상에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혜인·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봉축음악회에서는 조장혁·박주희 등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항우의 기개로 정진하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上無片瓦(상무편와)하고
下無卓錐(하무탁추)로다.
日往月來(일왕월래)에
不知是誰(부지시수)오.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어라. 이 누구인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하안거를 결제하는 수선납자여!

가난하기는 범단(范丹)과 같으나 그 기개는 항우(項羽)와 같도다. 육화로 화합하며 화두참구에 힘쓰니 6월 염천이 오히려 서늘하도다.

요요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의 집 살림살이가 본래 그러하며, 한결같이 공(空)하여 물(物)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묘하게 문수의 지혜경계에 나아가니 삭풍이 매우 차서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득하고, 높은 보현의 행문(行門)을 밟으니 훈풍이 불어와 푸르고 노란 빛이 땅에 가득하도다.

直指單傳密意深(직지단전밀의심)하니
本來非佛亦非心(본래비불역비심)이라.
分明不受然燈記(분명불수연등기)하니
自有靈光耀古今(자유령광요고금)이로다.

직지단전의 비밀한 뜻 깊으니 본래 부처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니로다. 분명 연등의 수기를 받지 않았으니 스스로 신령스런 빛이 있어 고금에 빛나도다.

세 개의 서까래 아래, 일곱 척 자리 위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제대중들이 10년 20년 내지 일생 동안 세상을 떠나 모든 반연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일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안을 타파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그 병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생의 선근(善根)여부를 탓할 일이 아니며 스승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탓할 일도 아니며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매 순간 순간 치열하게 정진하지 않았던 결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단 한마디라고 하겠습니다.

"삼조연하(三條椽下)요 칠척단전(七尺單前)이로다. 세 개의 서까래 아래와 일곱 척 자리 위에 있느니라."

서선계도(西禪繼圖)선사가 법상에서 말씀했습니다.

"낱낱의 국토마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의 티끌마다 한 분 한 분의 미륵불이 계신다. 만약 이런 도리를 제대로 모르겠다면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분명하게 궁구해야 하리라."

선지식께서는 모두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애써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제 때 끌고 다니던 지팡이를 마루 앞에 세우고 걸망을 높이 걸어두고서 구십일 동안 서까래 3개의 넓이 그리고 일곱 자 길이의 선판(禪板)자리에서 오로지 애써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삼조연하 칠척단전의 공간만 있으면 공부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수행한다면 삼조연하가 온우주가 되겠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칠조단전이 그대로 한 평짜리 감옥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만 있다면 그 공간은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겠지만 간절함이 없다면 한 톨의 겨자씨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임제가 선당(禪堂)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황벽선사가 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주장자로 칠척단전 선상 끝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임제는 고개를 들어 황벽을 한번 힐긋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벽은 다시 삼조연하 아래 선상 끝을 주장자로 내리친 다음 상판이 앉아있는 자리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수좌가 좌선하는 곳을 보고는 말했다.

"하판에 있는 임제 후배는 좌선을 하는데 그대는 가장 높은 수좌자리에 앉아서 망상을 피우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삼십년을 삼조연하 아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3하(夏)를 서까래 아래에서 제대로 정진하는 공부 인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시간의 길이나 공간의 넓이가 아니라 공부의 내용과 깊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조연하 아래 칠척단전 위에서 잘 살면 수행 터가 되지만 잘못 살면 바로 망상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대중은 구십일동안 삼조연하 칠척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면서 오직 애써 정진 합시다.

설산육재무일연(雪山六載無一椽)하니 작소관정노천슬(鵲巢冠頂蘆穿膝)이로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실 때 머리 위에 서까래가 없었으니, 까치는 정수리에 집을 지었고 무릎사이로 갈대가 뚫고 나왔도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性空海中寂寂寥(성공해중적적요)
業風起時動成波(업풍기시동성파)
風靜水波一切同(풍정수파일체동)
何處風吹萬波高(하처풍취만파고)

물과 파도는 달리 보여도 둘이 아니다. 성품의 고요한 바다 가운데는 고요하고 요요할 뿐이네. 업의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되어 움직이네! 바람이 고요하면 파도와 물이 하나가 되는데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어 일만 파도가 일어나는가?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 어디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잠을 자고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바닷물과 같은 것이다. 평상시에 고요한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맑고 고요한 마음 가운데서 온갖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서 자신을 흔드는 것이다.

진여자성을 깨달은 도인의 마음에서 보면 물과 파도가 달리 보여도 근본은 똑같은 바닷물인 것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그려낸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알고 나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한 바닷물이고 똑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이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대로가 자신의 한마음이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비 분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고 맑고 여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닌 부처 님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된다. 달마대사에 법을 이은 동토의 2조가 혜가대사이시다. 혜가 대사의 법을 이은 3조 승찬대사이시다.

승찬은 풍병을 앓고 있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바짝 말라서 보는 이의 마음까지 안쓰러울 정도이다. 인생에 무상함을 느끼고 구도 행각을 나서게 된다. 참다운 삶은 무엇일까? 삶과 죽음이란 커다란 숙제를 풀기 위해서 2조 혜가 대사를 찾아가 용기를 내어서 물었다.

"큰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몹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죄업을 소멸하고 저의 생명을 구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큰 절을 세 번 올리고 거듭 간청하였다.

혜가 대사는 병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오그런가. 내가 그대의 죄업을 소멸시켜 줄 터이니 그대를 괴롭히는 죄업을 찾아서 이리 내놓게나"라고 말했다.

승찬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죄업을 찾기 위하여 마음속 구석구석 찾고 또 찾아보아도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죄업을 찾을 수가 없었다.

"큰스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 마음속 어느 구석에서도 죄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업을 찾을 길이 없다면 너의 죄업은 모두 참회하고 마쳤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승찬은 모인 것은 내 생각이 만들고 스스로 죄업에 속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활연대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도 텅 빈 하늘처럼 맑고 고요한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고 또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털구름 먹구름 목화 구름 양떼구름 온갖 모양으로 변화하고 바뀌지만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에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공하고 생각도 공한 것입니다. 근본 마음의 실체는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一心淸淨(일심청정)하고 無垢無念(무구무념)이면 處處安樂(처처안락)이요 有心淨土(유심정토)니라.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때 묻거나 물들지 않으며 곳곳이 안락국토요 맑고 청정한 극락정토입니다.

하안거 중에 대중이 오직 일념으로 정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성을 확철하게 깨달아 모두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 갑진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5월 17일 기준 발표된 법어로, 모든 법어는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찬연한 '신라시대 금빛 보살상'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7월 28일까지
'다시 찾은 신라의 빛' 展 개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공개
5월 14일 국제학술심포지엄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천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다 출토된 신라시대 금동보살입상이 강원도 춘천에서 찬란한 금빛 자태를 뽐낸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재열)은 7월 28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5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선림원 터에서 출토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이 단독 조명된다. 양양 미천골 옆에 위치한 선림원 터는 금당과 승방을 비롯해 여러 전각으로 이루어진 통일신라의 절이 있던 곳이다. 보살상은 2015년 발굴 당시 출토지가 명확한 통일신라의 소형 금동상 가운데 가장 크고 대좌와 광배, 장신구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국보급 걸작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오랜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2023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금속보존처리 담당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 국립박물관의 보존과학자, 미술사 연구자의 자문을 받고, 통일신라의 다른 광배와 비교해 남은 광배 편을 맞춰 추가 복원했다.



양양 선림원 터에서 출토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사진제공=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의 원형 독립 공간에는 단 한 점,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만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저반사 유리로 된 진열장이 새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광배 뒷면까지 사방에서 선명하게 보살상을 감상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오랜 시간 보존처리와 복원을 거쳐 공개된 모습은 천년 넘게 땅 속에 묻혀 있던 서러움을 보여주듯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평가다. 대좌와 광배를 모두 포함, 높이는 66.7cm이며 강렬한 금빛과 몸에 두른 화려한 장신구가 시선을 끈다.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측은 "금동보살입상과 시선을 마주할수록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자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애로운 인상과 유려한 자태, 섬세한 장신구와 광배까지 모두 다시 찾은 신라의 빛"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금동보살입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촉각 체험물과 조각난 광배 편을 맞추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을 통해 관람객이 불교미술 전시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전시를 기념, 5월 14일 관내 강당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첫 학술행사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굴암 창건 기록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통일신라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불좌상의 제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민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술사 전공자와 보존과학자 등 전문가 5인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꽃피운 '전통사경'

6월 9일까지 오현주 作 등 30작품 전시
범어사 소장 국보 〈삼국유사〉 권5 재연
정여 대종사, 30여 점 선서화 작품 출품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6월 9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에서 '환희의 정원, 전통사경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사경의 대가 오현주 사경장의 작품들을 집중 조명하며 오백나한도, 화엄경약찬게, 금강경변상도 등 대작을 비롯한 약 30여 점의 다양한 사경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범어사 소장 국보 〈삼국유사〉 권5 효선편을 새롭게 필사하여 선보인다.

오현주 사경장은 1978년 서예가 여산 권갑석 선생의 지도 아래 서예에 입문했다. 문인화, 탱화, 고려사경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서예전에서 수상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전통사경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묘법연화경, 오현주 作.
사진제공=범어사 성보박물관

오현주 사경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경은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서 영혼을 담는 작업이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사경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귀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정여 대종사의 선서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정여 대종사는 불교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에 '무아(無我)', '차(茶)나 한 잔'을 비롯하여 25여 점의 선서화 작품을 출품했다. 선서화는 불교의 가르침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 작품들은 사경과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여유를 심어주고, 깨달음의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전시에 깊이를 더한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많은 불자와 일반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다양한 작품관람도 하고, 사경의 공덕으로 모든 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시대가 바뀌어 경전을 간행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책이 흔해졌다고는 하나, 불법의 가르침이 가벼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며 "허나 누군가는 옛 어른의 정신을 받들어 경을 남기는 일에 진력해 주었으면하고 바란다. 묵묵히 그 소임을 해내고 있는 오현주 사경장이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오현주 사경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시장 내 꾸며진 작업실에서 사경 제작을 시연하고, 관람객들에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박물관으로 사전 연락을 하면 해당 시간 외에도 체험 신청이 가능하며, 사경에 관심 있는 어린이나 성인 관람객들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051)508-613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상담학회, '불교 예술치유' 학술대회

5월 25일, 제21회 춘계학술대회

'불교와 예술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5일 오후 1시 '불교와 예술치유'를 주제로 '제21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안양규 동국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사회는 명오 스님(동국대), 좌장은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범패수행과 심신치유에 관한 고찰 △만다라 명상미술치료에 담긴 치유 요소 연구-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과 그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발표자는 해사 스님(동국대), 임시연(동방대), 김경숙(동국대)이다. 논평은 능화 스님(한예종), 원희랑(서불대), 김소형(동의대)이 맡는다.

학술대회는 비대면(웹엑스)으로 진행되며 웹엑스 접속번호: 2555 627 9782, 비밀번호: 123456으로 접속하면 된다. 010-2933-006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접수마감 6월 15일…수상자 1000만원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분야에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연구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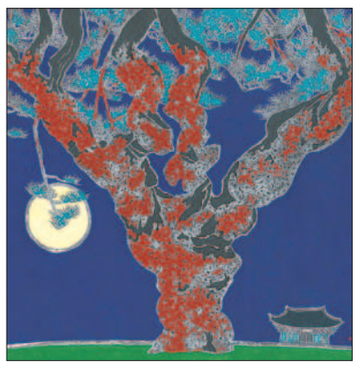
접수는 오는 6월 15일까지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anyaresearch.org)를 참조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임무상의 그림산책 2' 출간기념 초대전

6월 1일~9월 30일, 갤러리 삼강

K-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던 임무상 작가가 '임무상의 그림산책 2권' 발간을 기념하며 전시회를 연다. 갤러리 삼경 기획으로 진행되는 임무상 초대전은 '임무상의 그림산책 2권'에 실린 작품 중 20여 점이 전시된다. 2005년 2월 금강산 기행 후 작업한 대작 '만물상' '구룡폭포'를 비롯해 '내연산 보경사 월송' '하동 문왕송' 등 2023년 신작이 대거 공개된다. 이 외에도 '북한산 인수봉' '불암산' '송광(松光)' 등 대부분 자연 회기와 친화적 소재들이다.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더불어 살기'에 부응하는 작품들로, 회고의 상징성을 담았다.



내연산보경사월송(月松), 125x138cm, 한지, 먹, 천연혼합채색, 2023.

임무상 작가는 "작품 면면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공감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무상 작가는 지난해 8월, 100회 작업을 책으로 엮어 '임무상의 그림산책 1권'을 출간했다. 이후 기록한 100회의 작업으로 최근 2권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양주 갤러리 삼강에서 진행된다. 0507-7435-1120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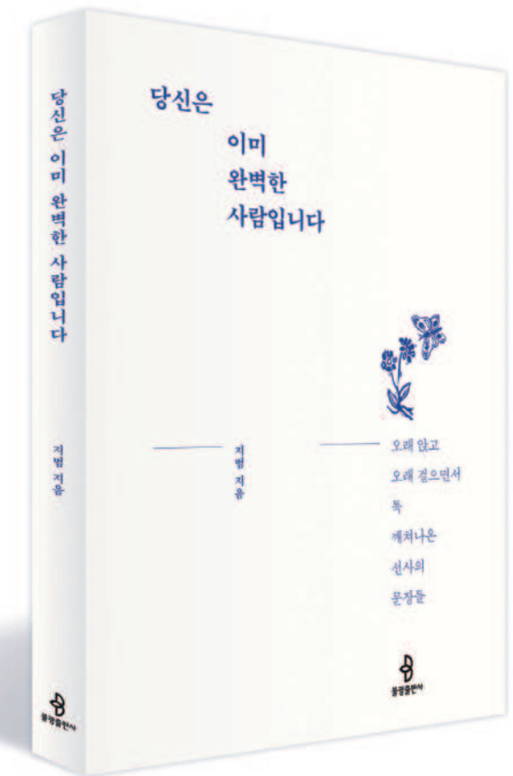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단단한 공부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툭
깨쳐나온
선사의
문장들

지범 지음 | 224쪽 | 값 17,000원



지범 스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보문선원 선원장. 1978년 출가 후 20년 넘게 운수납자로 살아오며 전국 제방선원에서 오로지 수좌의 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자암 무문관, 백담사 무문관, 진귀암 무문관 등에서 3년을 치열하게 몸을 던졌으며, 봉암사와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을 여법하게 회향하기도 했다. 2000년 은사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하게 되어, 보문사 주지를 맡게 되었다. 이후에도 결제철엔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수좌로 돌아가 좌복에 몸을 던져왔다. 2022년 서울 도심에 출 · 재가자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보문선원을 개원하고,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끌며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BBS불교방송 '지대방 산책'에서 법음을 전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5/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생애(만화불교이야기1)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꾼달리니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불교사회복지(프라즈나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 모색	명안	운주사
5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6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 마음업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68편 수록*법정스님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달마대사어록(경전조사어록3)혈맥론/관심론/이입사행론	우학	좋은인연
10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고통·즐거움 모두 분별…인과 진리를 알라”



개미의 발소리
진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원

진우 스님이 쓴 ‘禪명상 에세이’
평안 주는 108가지 이야기 담겨
“세상에 절대 행복은 없다” 강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자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풍부한 포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시기에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크게 기여했고, 2019년 대한불교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해서는 ‘승가교육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 교역자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결집하면서 현실 여건을 극복하는 효율적 승가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널리 펼치는 가운데 특히 ‘K명상과 선수행’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온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담양 용흥사 주지 소임을 보던 2008년, 스님은 용구산 몽산선원을 개원하고 참선 수행에 매진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5시까지 입선을 하고 난 스님은 일과를 위해 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든 생각, ‘명상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명상에 대한 짧은 단상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메시지 모임이 어느새 200명에 이르렀고,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는 네이버 밴드로 발전했다.

진우 스님이 최근 발간한 〈개미의 발소리〉는 2008년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해 신도들과 소통했던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책의 머리글에서 이같이 술회한다.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올 수 있었던 힘은 불자님들이 느끼는 실생활과 참선의 괴리를 불식시켜 보겠다는 호기와 부처님 법을 잊지 않고 매일 수행해나가겠다는 다짐, 혹은 참회에 있다. 사실 이 책의 출발점은 한 장의 메모지였으며, 답답한 일이 생겼다며 달려오신 신도님들의 막무가내식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답해드렸다.”

책에는 스님이 일반인들과 나누었던 고민과 살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이 담겼다. 상담 사례뿐 아니라 선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우화들이 동원되면서 이 시대에 선명상이 필요한 이유와 명상 수행의 방법을 우리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불러들인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랜 시간의 참선 수행과 경전 등을 독송하며 체득한 지혜가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까지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사소함에 관심을 두면서도 교리에 충실한 점도 특징이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력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진우 스님은 개인의 업력을 기분과 감정이라는 현대인들의 언어로 환원하면서, 어떤 일이든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서 좋다거나 싫다고 고락을 분별하게 되면 인과의 업(業)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운명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몰락은 지금 당장 일어난 기분과 감정을 분별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연기법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세상은 연기법을 통해 생겨났다. 이 법칙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으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잘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앞에 벌어진 현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분별을 일삼기 때문이다.”(20P)

말과 행동, 생각 중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싫으니 헤아리며 기분에 집착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감정이 요동치다 보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마음에 분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인간의 삶에 감정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진우 스님은 우리의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업력과 과보 때문이라고 간파하는데, 이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은 채 세상에 참여하게 된 이의 신선한 조망이다. 그렇기에 스님을 말한다. 고락 윤회를 끊어내고 편안해지라고.

“사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고락의 분별을 반복하며 인과의 세계에 살든지, 아니면 마음을 깨쳐서 윤회고를 벗어나든지. 인과 작용에 관해 깊이 알아갈수록 무의식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분별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시끄럽고 괴로운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우선이다. 마음이 편안한 이가 자신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공이다.”(393P)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보현행원’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법상 스님 지은
민족사/ 2만3000원

너무 애쓰다 보면 꼭 탈이 난다. 마음도 애쓰면 지치고, 열정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도 지치는 일이다. 번아웃 증후군, 가면 증후군, 착한아이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곳에 힘을 쏟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힘을 줘야 할 일과 힘을 빼야 할 일은,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튜브 구독자 16만2000여 명을 보유한 파워유튜버 법상 스님의 신간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는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 강조한다. 사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쓸 에너지도 남아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한 책이다. 저자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한 종교의 신행서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불교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전통적인 경전 같지만, 그 단어가 주는 방편을 뚫고 너머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경전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는 직접적인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초등학생



저자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심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현실에서는 20년 넘게 군승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원회 상주 대원정사와 해운대 목탁소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종교를 초월해 16만여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특히 매주 실시간으로 열리는 목탁소리 토요법회와 대원정사 일요법회는 매회 1000여 명 이상의 도반들이 온오프라인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도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해, 부처님의 참된 진리와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묻고 답을 얻는 내용이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그 여정의 마지막인 보현보살을 찾아가 여쭙자 보현보살이 그 답으로 말해준 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이다.

보현보살은 다른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 10가지와 그것에 대한 쉽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인 ‘행원(行願)’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보현보살 자체가 바로 실천적·구도적 행(行)의 보살이기 때문이다.

그 10가지란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널리 공양하고,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따르고, 모두 다 회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현행원품’일까?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속에는 쉽지만, 매우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우 깊고 깊은 가르침을 간단명료하고 단순하면서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르침이 쉽고 실천 가능하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상 스님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보현행원품’을 알렸고 그것을 읽기 쉽게 고치고, 새로 쓰는 긴 작업 끝에 “누구나 읽기 쉽고, 누구나 실천하기 쉽게” 만들었다. 경전과 현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실을 투영한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다.

이 역시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절로 공명하며, ‘행원’이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연등 변천부터 문화사까지 총망라



연등문화의 역사
백창호 · 오대혁 지음
담앤북스/ 3만6000원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거리엔 형형색색의 등불이 밝혀지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난 연등회다. 그러나 막상 연등회가 어떤 행사였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장과 오대혁 연구이사가 펴낸 책 ‘연등문화의 역사’에서는 연등회에 대한 궁금증에 속 시원한 답을 전한다. 이 책은 한국 연등회의 역사부터 변천, 연등회의 전승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진 수천 년의 등불 역사를 종교·정치·문학·예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연등을 바라보며 느꼈던 당대인들의 정서를 다양한 고문헌과 옛 그림을 통해 입체적으로 서술한 점도 특징이다.

연등문화의 고갱이를 드러낸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1장 ‘불과 등불, 그리고 연등의 문화사’에서는 연등의 의미와 연등문화의 역사 서술 방향을 설명한다. 2장 ‘불교 연등의 기원과 인도’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통해 불교에서 연등 공양이 갖는 의미를 소개한다. 이어 인도 및 서역에서 행해진 연등회 역사와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 3장 ‘중국의 연등문화’는 춘추전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등불 역사를 개괄한다.

4장 ‘한국의 연등문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화와 민속에서 ‘불’의 의미를 살피고, 삼국, 고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까지 연등문화의 변천 과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 5장 ‘연등문화의 특징과 미래’는 통시적 흐름 속에서 연등문화의 변화와 발전적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들은 장구한 연등문화를 “연등은 밤을 밝히는 도구를 뛰어넘어 우리 인류가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훌훌 벗어 버리고 소외된 곳을 밝게 비추고 지혜로써 지구와 인류를 구해 내야만 한다는 것을 ‘연등’은 오랜 세월 가르쳐 왔다”고 역설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하면서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연등문화’.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록의 시작점에 연등회 백과사전이자 가이드북이라 할 만한 책 ‘연등문화의 역사’가 있다. 김내영 기자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의 모습.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 "고마워요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 현장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이 정기법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발생 직후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유학생들에
장학금 및 모임장소 꾸준히 제공
그림전시회 개최로 관심 환기도

쿠데타 초 미얀마 지원한 불교계
현재로서는 전국비구니회가 유일
내전 확대로 희생자 수 증가추세
유학생들, 지속적 관심·지원 호소

전국비구니회관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참여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참석하는 법회도 아니다. 법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 이들은 특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법회라고 입을 모은다.

4월 27일 오후, 법회가 열리는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을 찾았다. 법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하나둘 전국비구니회관에 모이기 시작한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법회를 이끌어주는 비구니스님들께 합장 반배하며 예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곧 능숙한 한국어로 비구니스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미얀마 유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지는 꼬박 3년. 지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국비구니회는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회장 저윈태)에게 법당을 제공하고 월 1회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유학생들이 일찌감치 모인 것도 법회 전후 봉축행사에서 운영할 부스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던 학생들은 법회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만불전으로 향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출신 학생들답게 법당에서 묵언하고 진중하게 법회에 참여하는 모습엔 어색함이 하나도 없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참석해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광용 스님은 "타국의 낯선 환경에서 공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려울 때 함께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고국 또한 평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길 바란다. 전국비구니스님들 또한 수행자로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이어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맞잡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유학생들 역시 광용 스님에 꽃과 선물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된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미얀마 현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됐다.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이사 수타 진 씨와 비서 얀 나인 쏘 씨는 함께 부처님 앞에 서 발원문을 대표 낭독했다. 유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서로 화합할 것과 혼란스러운 자국에 민주화와 평화가 오기를 서원하면서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법회를 주관한 전국비구니회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법회는 그보다 유학생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는 쿠데타 발생 이후 창립됐다. 이전에는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 유학생들 사이에서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자국의 상황을 한국에 알리고 모금행사를 준비하면서 유학생들끼리 힘을 합칠 수 있는 단체 창립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한데 뭉쳐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를 만들고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유학생들의 사정을 전해 들은 전국비구니회는 연합회 측에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먼저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전국비구니회와 연합회의 인연은 지금도 현재진행중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자국 사정으로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이 최소한 학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연합회와 함께 현지 난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뿐만아니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과 불교음악회 등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에서 제공한 불교문화체험이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은 많은 미얀마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같은 미얀마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만 가는 관심 탓에 모금행사를 진행할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전국비구니회의 장소 지원은 든든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개최된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 역시 전국비구니회의 장소 지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유학생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SNS나 인터넷 등으로도 소통을 할 순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차를 마시는 소통보다는 못하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와 쿠데타로 인해 귀국이 어려운 유학생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저윈태 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임원진이 법회에 임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 수익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용 스님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201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아 경영학을 전공한 얀 나인 쏘 씨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여름 졸업해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향을 가지 못한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얀 나인 쏘 씨는 "저를 포함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안고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많지만 전국비구니회관에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며 "비구니스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위로를 받아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토목을 전공해 석사 학위까지 받은 수 타 진 씨도 정기모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향과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럴수록 더더욱 비구니스님들, 다른 미얀마 친구들과의 정기모임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저윈태 연합회장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는 한국불교계의 지원이 많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관심이 많이 줄었다"며 "지난 3년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곳은 전국비구니회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불교계의 지원'이라는 기자의 표현을 '전국비구니회의 지원'이라고 정정할 정도로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미얀마 유학생들의 신뢰는 두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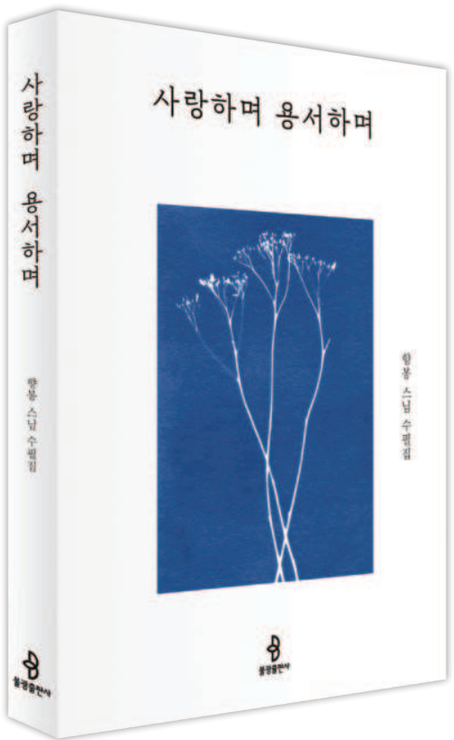
정호 스님은 "월 1회뿐인 정기모임이라 그런지 유학생들을 보면 항상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평소 걱정과 불안이 많을 유학생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미얀마 유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윈태 연합회장을 비롯한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저윈태 연합회장은 "시민군과 미얀마 군부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군부는 학교와 사찰, 민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피난민들은 태국 접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 피난민들은 식품과 의약품, 침구류 등의 생활물품이 절실하다. 한국사회의 관심과 도움은 미얀마 국민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값 1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야심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드디어 나왔다!"
『반야심경』이 궁금했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흥미진진한 『반야심경』 강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원영 지음 | 304쪽 | 값 18,000원

지상백고좌

반야불교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

“큰마음을 가져라…크게 행하면 아플 일이 없다”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 들어서니 하얀 불두화가 눈부시다. 바람소리에 연초록의 잎들은 술렁이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청량한 법문을 들려준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를 주석처인 반야암에서 친견했다. 지안 스님은 지난해까지 현대불교신문에 5년 넘게 〈능엄경〉 〈법화경〉 〈승만경〉 〈대승기신론〉 〈임제록 강설〉 〈선화의 향기〉를 연재했다. 어려운 경전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 쓴 글이라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먼저, 최근 근황에 대해 여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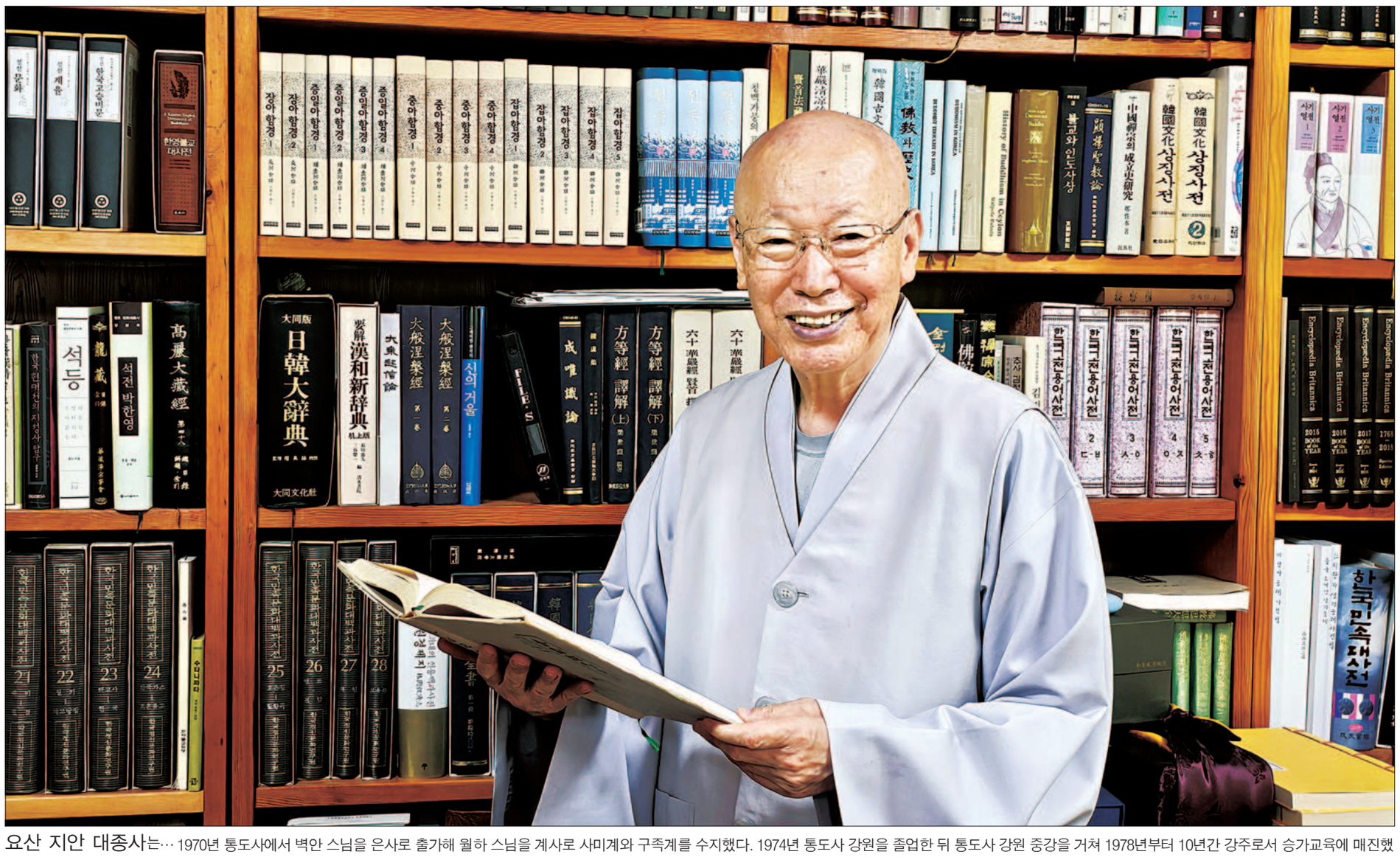
“오전에 반야암 주변을 포행하는데 날마다 변하는 산빛이 참 아름다워요. 〈법화경〉 출간을 위해 경전을 보거나 원고를 보고 있어요.” 짧게 근황을 이야기 한 뒤, 은사스님에게 받은 가르침을 여쭸다. 지안 스님은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 벽안 스님은 공사(公私)가 분명하여 실언이 없고, 평생 하심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법도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가장 청백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벽안문도회에서 은사스님을 추모하는 문집을 발간할 때 책의 제목을 〈청백가풍의 표상〉이라고 지었어요.”

지안 스님이 계를 받고 나서 은사스님께 인사를 드리니 “중 노릇을 잘하려면 금생에 네가 안 태어난 셈 치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했다. 스님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는 수행자인 스님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나, 화가 날 때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 왔는데’라며 은사스님의 경책을 되새겼다. “은사스님의 말씀이 평생 경책하는 가르침이 되어 스스로를 조복하면서 하심하게 된다”는 지안 스님의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무한한 공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통도사에는 근현대 불교 선지식들이 많았다. 지안 스님이 계를 받은 월하 스님, 극락암에 주석하며 승풍을 진작한 경봉 스님 등등.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안 스님은 “어른스님들이 계서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고 술회했다.

“그때는 경봉 노스님, 월하 노스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어른스님들이 계셔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위기였어요. 어른스님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뭔가 좋은 스님의 이미지가 되살아나고, 우리 스스로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생겼지요. 경봉 노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요산 지안 대종사는…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통도사 강원 중강을 거쳐 1978년부터 10년간 강주로서 승가교육에 매진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와 역서로 〈왕오천축국전〉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마음속 부처 찾기〉 〈대승기신론강해〉 〈금강경 이야기〉 등이 있다.

부처님 말씀 ‘큰마음 가져라’ 가르침
본래 마음은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
크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마음이 없어

내 자신과 세상 환히 밝히는 연등처럼
‘자리이타’는 밝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출가 후 지안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해마다 모시는 삼삼조사(卅三祖師) 다례재에 처음 참석했다. 삼삼조사(卅三祖師)는 인도의 28조(祖)와 중국의 혜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혜능 스님을 가리킨다. 당시 경봉 노스님께서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치고는 법문을 설했다.

“경봉 스님은 ‘오늘은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해 마쳤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법문은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메밥은 희고, 김은 검다’라는 한마디를 더 남기시더니, 주장자를 탕 탕 탕 세 번 치고는 법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당시 법문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경봉 노스님은 통솔하는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산중을 다스리는 노스님을 뵈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월하 노스님은 말없는 감화력이 있었어요.”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바로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강주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강주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맡아달라고 하기에 맡게 됐다”고 말했다.

선방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서 화두를 참구하듯이 감로당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은 사집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루종일 책을 읽어야 했다. 어느 날 월하 스님이 “오늘은 왜 감로당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강사인 지안 스님이 “감로당 학인들이 울력을 가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 당시엔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강사를 불러서 따질 만큼 후학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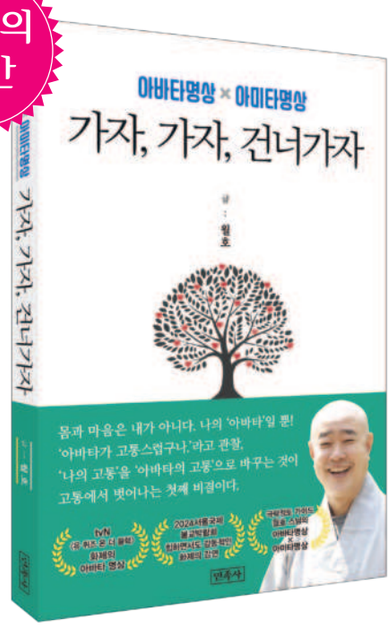
“학인스님들이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예전엔 감로당에서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과목도 개편되었고, 책 읽는 소리가 옛날처럼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변해가는 거지만 옛날의 절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면에 계속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을 통해 아미타 세계로 들어가자!

화제의 신간



사바세계의 윤회게임에 지쳐 해탈게임으로 판을 바꾸려면
사바를 로그아웃하고 극락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 패스워드는?
“아미타바(Amitābha).

아바타명상 × 아미타명상을 통해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은 노·병·사에 대한 응급처방이며
아미타 명상은 영원히 병고와 죽음이 없는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것이다.
삶 속에서 훈련하기 좋은 실천 명상의 결정판!

글 월호 | 336쪽 | 18,500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아바타 명상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 힙하면서도 감동적인 화제의 강연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반야불교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

“존재 중심은 마음…마음이 생기면 法이 생긴다”

12면에 이어

지안 스님은 2011년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창립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을 자주 다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은 6할이나 7할이 불교를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마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아마 한 명도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연구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식인들에게도 불교가 바로 전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스님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도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불교 강좌를 열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주위 불자 교수들이 ‘연구원을 만들라’는 조언을 해줬고,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창립으로 이어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강좌를 15년 동안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세미나도 열고 있다. ‘반야불교 학술상’을 만들어서 매년 9월에 시상식을 하는데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불교와 인문학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대학교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강의 테마는 개강할 때마다 달라진다. 2024년 봄에는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테마로 강좌를 열었는데, 70명이나 등록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에 학술지 〈프라즈냐(prajna)〉를 창간했다. 학술지 명칭인 ‘프라즈냐’는 깨달음에 이르는 뛰어난 지혜인 ‘반야(般若)’를 의미한다. 학술지를 창간한 배경과 지향점이 궁금했다.

“〈프라즈냐〉에는 논문 주제는 자유로이 쓰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 원고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논문도 있어요. 원고 주제들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및 계층 간의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불교의 지성화’를 주창하는 지안 스님에게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먼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삶의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음의 정체에 대해 가장 차원 놓은 이론적 설명을 해놓은 책이 〈대승기신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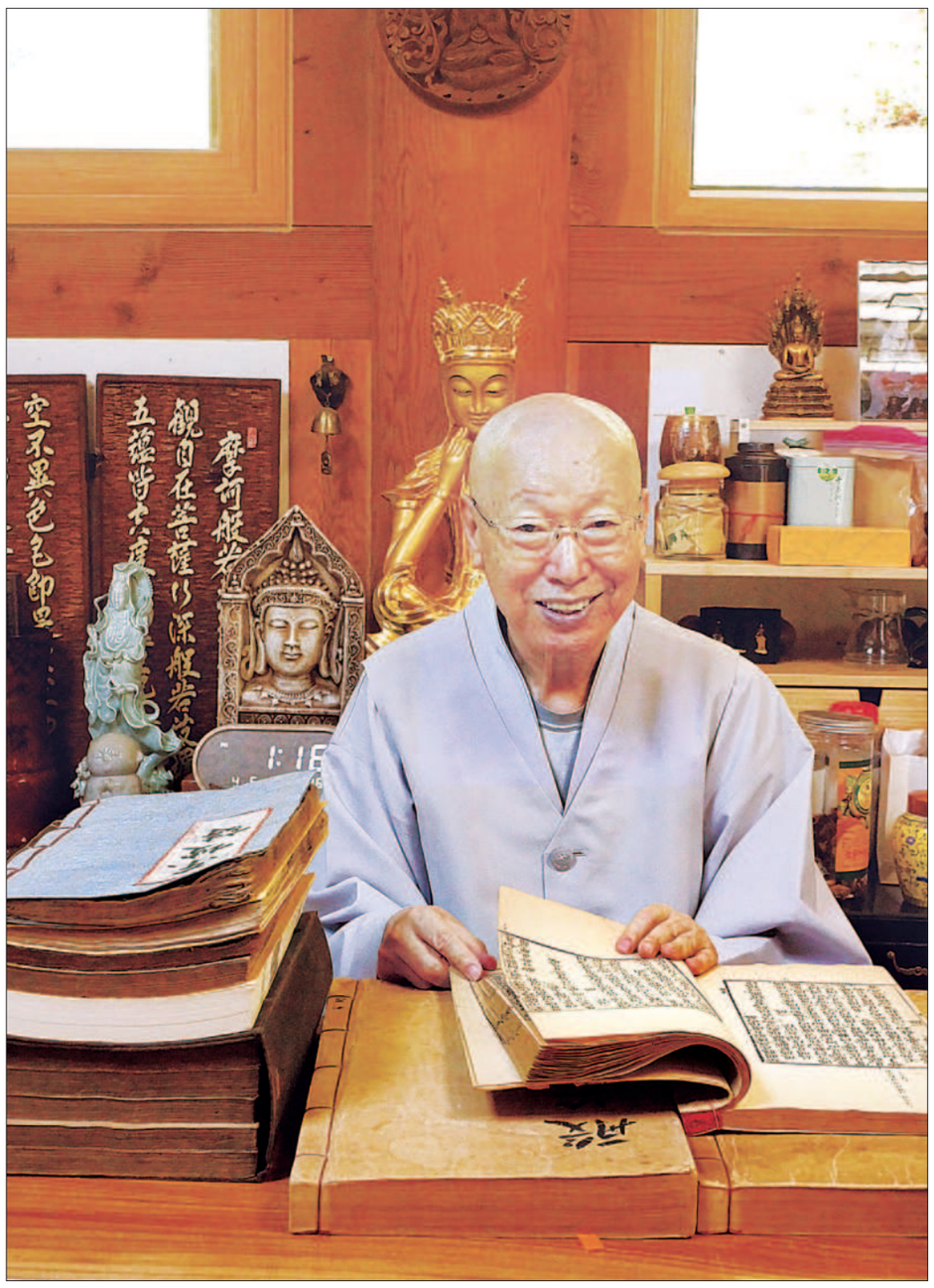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일체분별 불별자심(一切分別 分別自心), 일체 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에 의해 차별이 생기므로 결국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빚어낸 경계가 마음 밖에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라 없어지는 법의 허망성이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아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법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체 법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모든 분별,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
마음 빚어낸 경계, 마음 밖에 있지 않다

지안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2만여 번 독송했다.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경안이 열리게 된다”는 게 지안 스님의 설명이다. 세종대왕의 독서법은 어떤 책이든지 백독을 하는 것이었단다. 어려운 경전도 백 번을 읽으면 이해하게 되니, 경전도 다라니 외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독서에 대한 스님의 철학이다.

실제 지안 스님의 글에는 플라톤,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 등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독서의 철학이 남다른 만큼 그 스펙트럼도 폭이 넓다. 스님은 “별로 대단한 건 아니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지요. 중학생 때는 수업 마치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책에 빠져 살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주위에서 ‘도서관의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습이 남아있어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전 만큼은 책을 읽지 못해도 지금도 매일 2~3시간은 책을 보면서 생활합니다.”



지안 대종사가 경전을 읽고 있다. 〈금강경〉을 2만 번 독송한 지안 스님은 “어려운 경전도 백 번 읽으면 경안이 열린다”고 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좋은 습은 익히기 어렵지만, 한 번 몸에 밴 좋은 습관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마음과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여 법문을 청했다.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생멸심이라 합니다. 생멸심이 곧 시간입니다. 생멸심에 의해 시간의 장단이 느껴지지요. 잠을 잘 때는 시간을 못 느끼는 것처럼 생멸심을 여읜 선정 상태에서는 시간의 장단이 없어요. 번뇌가 있는 마음에서는 길고 짧은 시간 의식이 일어나지만 삼매에 든 상태에서는 시간을 느끼는 의식이 없어져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곧 생각입니다. 시간의 단위 중 ‘찰나’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염(念)이 됩니다. 1찰나가 일념입니다. 1찰나에 900생멸이 있다고도 합니다.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1초에 75찰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은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사바세계에서 시간은 중생들의 업보가 들어있어 겁탁(劫濁)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겁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며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이 일어난단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고와 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들, 또 거대한 재해 등이 모두 시간이 오염된 결과이지요. 반면에 이 시간의 오염을 해소하는 일은 무상(無常)을 깨닫고 시간 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찰나무상을 통해 헛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참자아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제도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오염되면 시간이 오염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수행한다는 것은 자성청정심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을 닦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벌겋게 달아있는 난로 속으로 들어가면 될게야’라고 답했어요. 더워 죽겠다는 사람에게 뜨거운 난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엉뚱하기 짝이 없지요. 큰 더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작은 더위쯤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겠지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을 크게 먹고 살면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큰 마음을 가져라는 가르침입니다. 크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큰마음으로 크게 행하면 아플 일이 없지요.”

부처님오신날 즈음인 만큼 지안 스님께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청했다.

“우리가 등을 켜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리이타는 밝은데서 나옵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며, 내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마친 지안 스님은 환히 웃어보였다. 스님의 미소엔 말씀하신 ‘밝은 마음’이 담겨있는 듯했다. 반야암의 계속 물소리도 밝고 청아했다.

문윤정 / 작가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⑪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보리사 마애석불

▶한줄 요약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은 보리사 대웅전 좌측에 자리한다. 잘 포장돼 있는 길로 만나는 것만큼 남산 순례의 멋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보리사 마애석불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보완해야 한다.



완벽 보존 신라 불상… 남산과 낮은 연결성 '아쉬움'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광배의 화려함이 불상의 웅장함을 받쳐준다. 남산에는 이러한 광배의 화려함이 웅장함을 돋보이게 하는 불상이 더 있다. 신라 석조여래좌상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다.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은 동남산 초입에서 언덕길을 200m 오르면 나오는 보리사 대웅전 좌측의 축대 위에 화려하면서 당당하게 앉아 있다. 직접 본다면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을 나타내는 말에 화려함과 웅장함이란 표현 말고 더한 표현이 있나 싶을 것이다. 광배에는 불꽃이 밖으로 타오르며 둥근 연꽃이 두른 두광과 신광이 새겨져 있다. 불꽃 밑에는 7구의 부처님이 연꽃으로 장엄하고 있고, 광배 뒷면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약사여래가 새겨져 있다. 거기에 듬직하고 당당한 부처님이 항마의 손을 하고 연화 좌대에 앉아 있다. 참으로 멋진 불상이다. 그런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을 참배할 때마다 드는 아쉬움이 있다.

경주 남산이라는 불국토는 명승지 같은 자연환경에 안겨 있다. 그렇기에 남산의 불상을 참배하는 길은 자연과 함께하는 고즈넉함이 품어준다. 그런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을 참배하는 길은 이질감을 준다. 차가 없이 걷기에는 포장된 길이 여유로움을 빼앗는다. 버스는 보리사 주차장까지 갈 수 없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접근하기에 좋다.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오르겠지만, 알고 간다면 차를 타게 된다. 포장된 길을 걸어서 오르기엔 남산 불국토 순례의 멋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섬에 갇힌 것 마냥 이곳과 연결된 남산의 불국토를 참배하기 위한 길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아쉬움이다.

또 다른 아쉬움은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미륵곡이라 했을까 싶은 것이다. 미륵곡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륵곡을 꼭 써야 한다면 미륵곡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이라고 정하면 될 것을. 소유자는 국가이고 관리자는 경주시여서 명칭에 보리사를 뺀 것인가 싶은데 좀 그렇다. 보리사라 하면 찾기도 쉽고 또한 보리사 경내에 있는 불상이라 스님과 신도분들이 잘 지켜주실 건데. 참배의 대상을 문화재로 접근하는 당국의 처신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보리사 마애석불에 있다. 보리사 마애석불은 아담한 마애불상이다. 마애불이란 비탈진 바위의 절벽에 불상을 쪼거나 다듬어서 만든 불상이란 의미이다. 즉 석불은 부처님의 형태를 3차원으로 온전하게 만들었다면 마애불은 형태를 2차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애불은 보리사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에서 왼쪽으로 좀 힘들다 싶게 가면 흙 언덕길에서 갑자기 거의 2m 정도의 바위가 나타난다. 이 바위에 광배 형태의 감실 홈을 152cm 높이로 파고,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110cm의 불상을 새겨 만든 마애불이다.

보리사 마애석불을 보면 '여기에 왜'

신라 석조여래상 중 원상태 유지
포장된 도로들 여유로움 빼앗아
낭산 바라보는 보리사 마애석불
접근성 떨어지는 것은 보완해야

란 생각이 든다. 그냥 한적한 산중에 뜬금없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리사 마애석불의 시선으로 낭산을 바라보면 의미심장함을 느끼게 된다. 건너 낭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낭산은 신라불교에서 도리천으로 불리던 곳이다. 1215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각훈이 지은 〈해동고승전〉이나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선덕여왕이 묻힌 곳은 도리천으로 나온다. 선덕여왕릉 밑에 사천왕사가 있는 것에서도 낭산이 도리천임을 알 수 있다.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 제석천이 있는 곳이며 사천왕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리천은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시는 곳이다. 마애석불 밑 앉기 편한 곳에 앉아서 고요히 있으면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결이 나뭇잎을 건들듯이 소곤소곤 들리는 것 같다. 이러한 도리천을 지켜보고 계신 부처님이 보리사 마애석불이다.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리사 마애석불.

아쉬움은 여기서 시작한다. 마애불 밑에 앉아서 바라보는 경치도 좋고 기원하기도 좋은데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보리사의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을 참배하고 보리사 마애석불을 처음 찾아갈 때의 당혹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옆에서 바로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안내 팻말은 보리사 주차장에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가는데 등산로라기보다 작은 샛길이 나왔다.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길을 잃었나 긴장도 하던 어느 순간 '저 바위구나' 했었다. 보리사 마애석불은 소유와 관리자가 보리사로 되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데크 길이나 상식선의 산책길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불교 관련 상황을 비판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판 없는 성숙은 없었으며, 비판이 사라진 집단은 썩어가거나 망해간 교훈은 여기저기 드러나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선 비판에 익숙하시다. 여기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비난은 잘못을 지적질만 하는 행위이지만, 비판은 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이고 방향 제시이다. 한국불교는 비판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왜 한국불교는 비판에 익숙하지 않게 됐을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조선불교의 현실 외면의 모습이 지금까지 전통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불교는 현실 비판에서 시작한다. 비판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불교는 중국으로 전래되었을 때 삶의 지배 이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불교였다. 이러한 불교가 오대십국 중 하나인 후주(951~960)의 폐불로 교종이 무너지고, 송나라(960~1279)시기에는 정형화된 선문답과 선어록이 정리되면서 경직된 선종만이 남게 된다. 이후 중국에서 선불교는 당나라 선사들의 일화만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현실 삶의 극복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주자(1130~1200)가 나타난다. 주자에게 선불교는 사라져야 할 종교로 비판받는다. 유목 민족에게 중국이 지배당하거나 압박받는 시대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선불교를 중국인이 숭상했기 때문에 강력했던 중국이 나약해졌다고 본 것이다. 주자의 주자학은 선불교의 현실 외면과 경직된 관념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주자학을 받아들여 나라를 세운 조선의 주자학자에게 불교가 억압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불교계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주창하는 신미대사(?~?)와 조선 명종 대의 보우대사(1509~1565)의 일대기를 보면 조선에서 스님의 현실 참여 금지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신미대사는 세종에게 혜각존자(慧覺尊者)라는 칭호를 받고 문종과 세조의 스승이 될 정도로 각별한 대우를 받는다.

세종의 손자인 예종 1년 1469년이 되면 스님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급변한다. 예종은 모든 승려를 〈금강경〉과 〈법화경〉을 강론하지 못하면 환속시키려 한다. 이에 신미 대사가 부당함의 글을 올렸으나 예종이 화를 내며 스님이 윗사람인 관리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보우대사는 조선 불교의 중흥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잡혀가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깡패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입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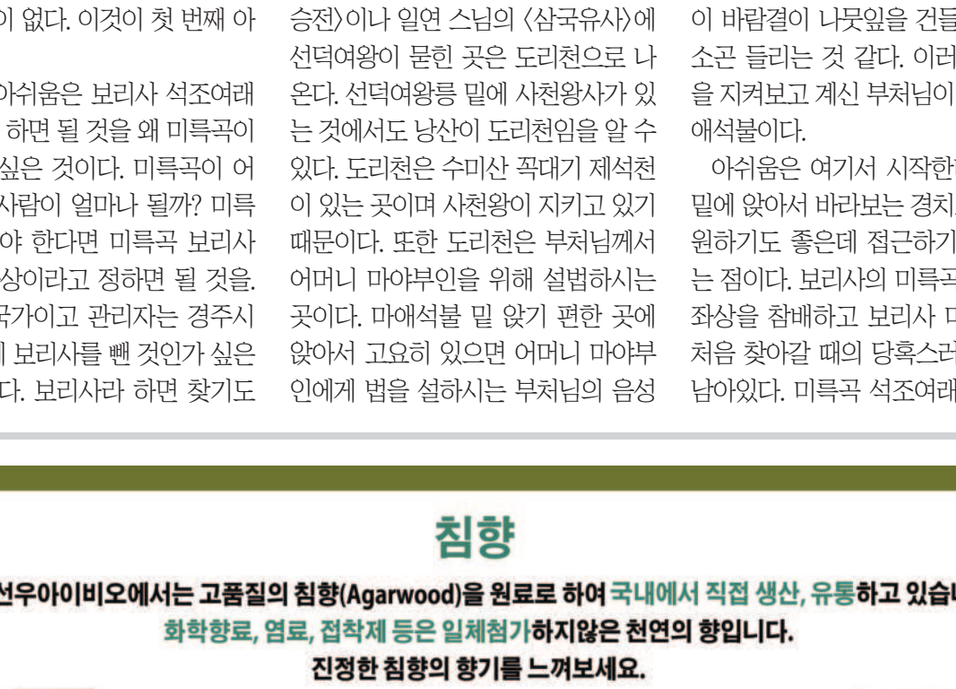
이러한 모습 속에서 조선에서는 현실 참여의 법문을 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 누구 하나 주자학자들에게 잡혀가지 않은 스님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조선에서 불교는 건국 초기 불교의 종파는 통합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선종 단일 종파로 남게 된다. 이렇게 조선 500년을 지나며 조선 불교는 주자학자들의 탄압 속에 현실을 바라볼 눈을 키우는 교학은 사라지고, 현실 참여 또한 사라지며, 개인의 깨달음만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 체계만 남게 된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에 있다. 그런데 조선 500년을 지나면서 상구보리만 남고 하화중생인 현실 참여의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 불교의 체계가 지금의 한국 불교에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 싶다.

경기도 광주에서 일요일마다 짜장면 봉사를 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다. 경기 광주에서 하루 동안 다녀올 거리에 있는 장애우 단체나 고아원은 모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봉사 갈만한 불교 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대승의 하화중생인 보살행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와 비교하면 불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단체가 제대로 없는 것이다. 한국 불교는 전반적으로 현실 참여의 적극성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약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범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흥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국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배(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은공(은공사)
덕각(초불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9951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5호 | 15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5883-2255
010-7151-85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 대지 : 종교부지 265평 (삼천포)
- 법당 : 20평 (동향)
- 요사 : 30평 (남향) 방3개
- 특징 : 50년된 우물, 수도
- 가액 : 3억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도심 속 깨끗한 사찰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40-1 관음정사
- 대지 106평, 건평 50평, 삼존불
- 모든 집기 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주차장 완비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010-9572-6778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대지: 17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m,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
- 임야 : 20,000평 (1500평 : 전답으로 사용, 마을 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

010-3758-8039 / 010-5211-99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양산 아래
- 청정도량 최상의 낙동강 뷰
- 토지 48평, 건물 90평
- 지하1층 34평 법당
- 지상1층 22평
- 2층 20평 및 3층 15평 요사채
- 종교시설 운영, 토굴 활용 가능
- 가액 3억 9500만원(협의 가능)

010-9881-736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5호 | 16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능엄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점 연구원

- 음력 생일 숫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미래와 과거를 자신 있게 보는 법 전수
- 준비물 없음. 외우는 것 없음.
- 사주 막힘 없이 보는 법 확실히 전수함.

토화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비구니스님 모집

- 민속신앙, 역학(능력자) 가능하신 분
- 청소년(국가, 인재후보, 교육생 활비 지원)도 지원 가능
- 새만금절(사)은 100세를 보장하는 건강요양원입니다.

새만금농장 전화
010-2159-0988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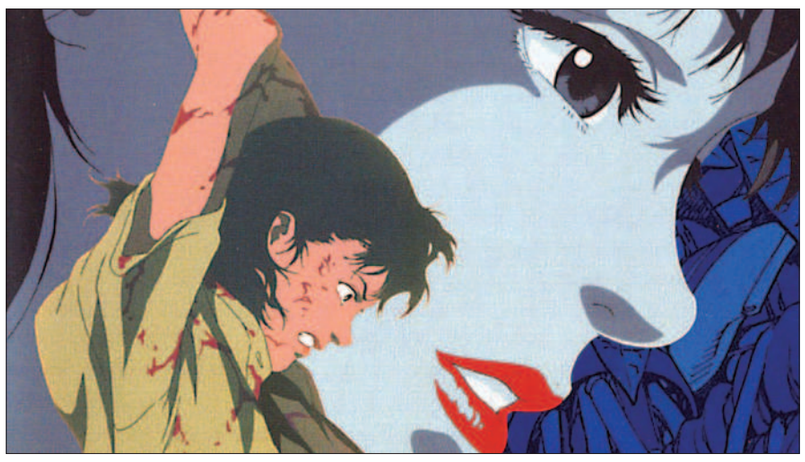
욕망과 자본이 빚어낸 '우상'들

〈Idol〉



이안의 Media In Buddha

㊵ 곤 사토시의 '퍼펙트 블루' '천년여우'



요절한 곤 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의 한 장면.

日아이돌 시스템 명암 다룬 애니메이션
주인공들 통해 '나는 누구인가' 고찰

한 기자회견 현장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생중계 현장에는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거칠 것 없는 막말과 폭로, 욕설과 눈물, 폭로 되는 사안의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까지 까발리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두고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단박에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손을 거친 기사가 되기도 전에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 하나를 두고 벌어진 천문학적 금액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돌발적인 이 사태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뉴진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TV는 아이돌을 위한,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의 매체였다. 연예계를 아이돌 천하로 만든 것은 뮤지션보다는 종합연예상품을 만들어서 대박 이익을 보려는 매니지먼트사의 기획과 아이돌을 출연시켜 높인 시청률로 최대한 많은 광고를 따내려는 방송사의 셈속, 그런 기획이나 셈속에 장단 맞춰 열광하는 우리 사회다. 아이돌은 대중문화가 산업적으로 성공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최대치의 이익을 뽑아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이런 거위를 찾기 위해서는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 오디션도 많고, 아예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즐비하다.

아이돌은 자신들이 이미 준비된 뮤지션도 아니고, 스스로 음반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아이돌은 소속사가 기획하는 대로 춤과 노래, 음반뿐 아니라 얼굴과 몸매, 이미지까지 맞춤으로 다듬어져 시장에 나오게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이 연습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습생은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별도의 계약 없이 어느 어느 기획사 연습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학교 정규 수업보다 소속사의 연습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데뷔를 꿈꾼다. 그러다가 소속사의 판단에 따라 상품성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될 때 데뷔를 하게 되고 그때서야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연습생 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각 기획사마다 수많은 연습생을 관리하다보니 막상 데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누적된 시간이며 금전적인 비용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미성년 시절부터 관리를 맡아온 기획사는 본격적인 계약을 할 때 가능한 한 긴 계약조건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 할 것이고, 수많은 연습생 가운데 모처럼 데뷔할 기회를 갖게 된 신인 연예인은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계약 자체를 하게 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돌 시장이 커지고, 스타성이 만들어내는 시장 효과가 확대되고,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자라나면서 애초의 계약 자체가 안고 있던 불공정의 문제가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이브 이전 이런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어낸 SM 엔터테인먼트와 이 기획사의 간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사이의 다툼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소위 '노예계약' 문제가 있었다.

동방신기 이후로 위험관리를 위해 대형기획사는 하위 계열사를 통해 분산투자와 분산관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엠넷(M.net)에서 런칭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내는 과정까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일단 거위를 찾아낸 다음 자기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일원화해내는 방식을 체계화하면서 이제 2조 단위 재벌의 반열에 들게 된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나, 그 하이브의 자회사 시스템으로 기획과 관리의 재능에 대한 보상을 최대치로 받아야겠다는 어도브의 민희진 대표도 다 SM 출신이다.

이런 아이돌 양성 시스템이 시장 자체를 키우자 트로트 분야나 댄스 분야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했고, 한동안 '성인가요'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트로트가 모든 채널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었고, 아이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던 댄서들도 스스로 스타가 되고 있다.

곤 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1997년)와 〈천년여우〉(2002년)는 이 같은 아이돌 시스템을 먼저 시작했던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곤 사토시는 아이돌 출신 연예인을 두고 벌어지는 미스테리 스릴러 〈퍼펙트 블루〉와 젊은 시절 은막을 주름잡다가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늙어 가는 여배우의 일대기를 짚어 가는 〈천년여우〉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여성과 그 여성에 집착하는 열성 팬, 그리고 미디어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이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를 아는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영화 속 영화, 이야기 속 이야기, 사람 속의 사람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

〈퍼펙트 블루〉의 주인공 미마는 아이돌 그룹 멤버에서 배우로 모습을 바꾸려한다.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에이전시의 기획 때문이다. 아이돌의 원뜻은 우상, 곧 금속이나 돌, 나무 따위 자연물로 초자연적인 존재의 형태로 만들어진 섬김의 대상이다. 아이돌의 어원인 그리스어 '에이들론'은 인간과 실재하는 대상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있는 영상을 뜻하며, 그래서 베이컨에 따르면 진리를 인식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우상이다. 미마가 이 우상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옮아가려고 하는 순간 방해와 협박, 살인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미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스릴러의 플롯과 시점을 따라 파국으로 치닫는다.

〈천년여우〉는 다큐멘터리 형식에 실린 판타지 속에서 한 여배우의 끝나지 않는 삶을 펼쳐 보인다. 열쇠 하나와 그림 한 점만을 남기고 사라진 첫사랑을 찾아 배우의 길을 걷게 된 십대 소녀 지요코의 긴긴 여정으로 이끌려 들어가다 보면 한창 전쟁 중이던 일본에서 만주로, 저주 속에 불타 무너지는 천 년 전의 고성에서 숨 가쁘게 내달리는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최고 스타의 화려한 삶에서 잊힌 여배우의 적막한 노년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종횡무진 누비는 카메라는 스타와 팬, 영화와 현실, 꿈과 좌절까지 모두 아울러 하나의 진실을 향해 쏘아 올려진 우주선을 비춘다.

곤 사토시 감독은 〈퍼펙트 블루〉에서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존재를 통해 스타와 팬, 영화와 현실, 미디어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 던졌던 질문에 대해 〈천년여우〉에서 자신있게 대답한다.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은 천년의 세월과도 맞먹을 만한 역사라고.

어도브와 하이브, 민희진과 방시혁의 목소리는 논란이 된 인터뷰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정작 뉴진스 멤버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미 대중들도 그들을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만 보는 것이거나, 자기 판단능력 없이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돌의 어원은 우상, 진짜 신이나 붓다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번 하이브-어도브 사태에서 보듯 모든 이들이 뉴진스의 의지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그들을 만든 우상 제조자들만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품은 5월, 이 아이돌들에게 우상의 자리가 아닌 자기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의 깨달음이 전해지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㉑

1.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도(八相圖)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왕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은?

①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②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③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④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⑤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해설 : 부처님께서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는 도솔천에 계시었다.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 왕비의 몸속으로 들어가셨기에 도솔래의상이라고 한다.

2.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묘사한 것을 팔상도(八相圖)라고 한다. 각각의 장면과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 성문 밖에서 병듦, 늙음, 죽음의 고뇌와 출가자의 평온을 보시다.
②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 도솔천에 오르셔서 깨달음을 구하는 천신들을 위해 설법하시다.
③ 유성출가상(逾城出家相) - 고뇌를 여의고 평온을 얻기 위해 한밤에 성을 떠나서 출가를 하시다.
④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를 위해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시다.
⑤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의 항복을 받으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다.

해설 : 도솔래의상은 도솔천에 오르신 게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의미이다.

3. [보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나눈 팔상성도(八相成道)의 내용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해설 : 각각 ㉠은 탄생, ㉡은 수행, ㉢은 최초의 설법, ㉣은 출가, ㉤은 깨달음, ㉥은 출가의 동기임으로 순서는 탄생-출가의 동기-출가-수행-깨달음-초전법륜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4. 불교의 사대성지(四大聖地)가 아닌 곳은?

① 카필라성 ② 붓다가야 ③ 쿠시나가라 ④ 룸비니동산
⑤ 사르나트(녹야원)

해설 : 붓다가야는 깨달으신 곳, 쿠시나가라는 열반하신 곳, 룸비니동산은 태어나 신 곳, 사르나트(녹야원)은 최초로 설법하신 곳이다. 탄생, 깨달음, 첫 설법(초전법륜), 열반은 부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네 장소를 사대성지라고 한다.

5.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지(成道地)는?

① 바라나시 ② 바이샬리 ③ 붓다가야 ④ 쿠시나가라 ⑤ 룸비니동산

해설 : 부처님께서는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바라나시는 사르나트와 가까운 지역으로 묶여서 이야기되며 초전법륜(최초의 설법)의 장소이다. 바이샬리는 자주 유행하신 곳으며, 쿠시나가라는열반하신 곳, 룸비니 동산은 태어나신 곳이다.

6. 부처님 당시 기타태자와 수닷타장자의 원력으로 세워진 인도최대의 사찰은?

① 소림사 ② 해운정사 ③ 기원정사 ④ 죽림정사 ⑤ 반야정사

해설 :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정사의 줄임말로 이는 기타태자의 숲(기수) + 수닷타(급고독, 한자로 수닷타를 급고독이라고 함)를 묶어 말하는 것이다. 즉 수닷타(급고독)에 의하여 기타태자의 숲에 생겨난 사찰(정사)이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③ 2. ② 3. ③ 4. ① 5. ③ 6. ③

스님의 한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앰프시설 명가에서 최고의 시설을 했다는 명산대찰에서 "제" 를 지내 본 염불 스님들이 한결같이 본사제품 시설 사찰들의 소리에 비해 염불이 힘이 든다는 하소연에 시설 총괄스님 (국장스님) 의 입회하에 본사의 초간편 최신형 디지털앰프 견본과 법당의 소리와 소리 비교 순간!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장난감 수준같은 현격한 소리차이에 귀를 의심하며 양쪽 소리를 계속 비교하시던 스님의 말씀 아!....내가 최신시대의 흐름을 너무 몰랐구나! 의 한탄 이었습니다.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법당서 소리비교시 상기의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누가 손해?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평균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스마트폰으로 일천만원 상당의 마이크 시리즈 소개, 본품도 이와같은 제품입니다. 주문택배시 20% 할인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⑪ 〈법구경〉(담마빠다) ②

▶한줄 요약
〈법구경〉은 423개의 게송으로 이뤄진 경전이다. 하지만 그 안에 인연담도 적지 않다. 그래서 얇은 〈법구경〉은 게송 그 자체고, 두꺼운 〈법구경〉은 인연담까지 담아낸 '법구의석'이다.



얇은 법구경, 두꺼운 법구경



그림 · 최주현

423개의 게송으로 이뤄진 '법구경'
게송 마다 '진리의 말' 담겨 있어
얇은 법구경은 법구경 게송 자체
두꺼운 법구경, 인연까지 담아내

알고 보면 이야기 창고

인터넷에서 〈법구경〉을 검색하면 늘 '담마빠다'가 따라다닙니다. 〈법구경〉을 빠알리어로 '담마빠다(Dhammapada)'라고 합니다. 담마는 진리·법, 빠다는 말을 뜻하니 진리의 말,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법구경(法句經)〉이라는 번역이 '딱'입니다. 〈법구경〉을 소개하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경을 찬탄합니다.

"불교도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교양서이고, 불교도들에게는 짧게 서술된 시들의 의미가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팔만대장경의 입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재성, 〈법구경–담마빠다〉 해제에서

"이 책은 서양의 독자들에겐 불교라는 종교적 배경이 굳이 강조될 필요가 없는 인도의 금언집이나 동양의 금언집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현진 스님, 〈담마빠다〉 머리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조그마한 시편이 그토록 사랑을 받아 오게 되었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수록되어 있는 시편 하나하나가 윤리적·종교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철학적으로도 예지가 번뜩이고 있어서 만인의 가슴을 적셔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카무라 하지메, 〈불교경전 산책〉 중에서

"담마빠다는 가장 고층에 속하고 가장 원형에 가깝고, 샘물처럼 순수하고 맑아 감명을 주는 경전이다.(중략) 그 내용이 마치 격언이나 금언처럼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기에 성별, 나이, 종교, 직업, 학식, 지위를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감동을 준다."

–일아 스님, 〈담마빠다〉 머리말에서

내 서재 책꽂이에서 손에 닿는 대로 펼쳐 드는 〈법구경(담마빠다)〉의 역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저 "좋은 말씀이네"라고 생각하고서 이 경전을 다 읽었다고 여겼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구경〉,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구경〉 만나는 첫 번째 방법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구경〉은 시집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꾸 음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가면서 가만히 마음을 머무르게 하며 읽어가야 하는 경전입니다.

〈법구경〉을 원어로 만나고 싶어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쪽지에 빠알리어 게송을 적고, 뒷면에 단어풀이를 적어서 종일 틈틈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 만난 시는 이랬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고, 나를 이겼고, 내 것을 빼앗아 갔다. 이런 생각을 품는 이들, 그들의 증오는 가라앉지 않는다."

–김서리, 〈담마빠다〉에서

욕했다, 때렸다, 이겼다, 빼앗았다라는 빠알리어를 음미하면서 이 싯구를 자꾸 읽었지요. 사실 처음에는 내용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만한 말이요,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거나 다투고 급기야 원한을 품는 것이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구경 구절에 심드렁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외려고 자꾸 읽고 되뇌다 보니 문득 세상 모든 갈등과 원한의 원인이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법구경 구절이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상대방이 나를 흉보거나 비난한 경우, 둘째,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 해를 가한 경우, 셋째, 상대방이 나보다 논리정연했거나 세력이 있어 내가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경우, 그리고 넷째, 상대방이 내가 아끼는 것을 함부로 가져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것 말고 상대방에게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웬만해야 내가 참지. 들어봐.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분노는 더 특별하다고들 말하지만 결국은 위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상대방을 자꾸만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분노와 증오가 피어오릅니다.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이불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화나게 만든 장본인과 마주치면 우물쭈물하는 내 자신! 이런 내가 밉고 서글픈데, 어쩌면 좋을까요.

잘못이 내 쪽에 있다면 시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를 이토록 서운하게 만들고 모멸감을 느끼게 해도 되는가 말이다'라며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이 꼬였으면 잘 풀어야 하고, 일을 망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증오를 품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망친 상대방을 향해 미움과 분노, 증오를 터뜨리느라 일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법구경의 다음 구절에서는 '증오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증오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일단 악감정에 얽매이고 더 얽혀들어 문제 해결을 아예 망치고 맙니다.

내 분노 바닥에는 상대방이 내게 끼친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니, 그런 줄 알아차리면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무조건 "화내지 마라"라고만 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 지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빤하기 이를 데 없는 싯구인데 이 구절을 외우려고 자꾸 읽으며 생각하다보니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부처님이 제대로 짚어내셨구나 싶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증오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싯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 의해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다."

–김서리 역주 〈담마빠다〉에서

〈법구경〉을 잘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시 한 수를 자꾸 음미하면서 그 속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면 내게 일어난 일들도 떠오르고, 불쑥 묵은 감정이 솟구치기도 해서 애써 진정시킨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전을 몸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싯구 하나하나에 내 이야기와 내 감정과 인간관계들이 펼쳐지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수씩 해서 423편의 시를 다 음미하려면 1년도 더 걸리겠지만 이것도 경전으로 하는 수행이라 생각한다면 아주 괜찮은 수행법일 것입니다.

모든 시에는 사연이 있다

가수 양희은의 노래 '한계령' 좋아하시나요? 강원도 사람인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 머리가 시리도록 맑고 추운 날씨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길이 떠오릅니다. 양양에 살고 있던 친척 집을 방문하고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 길을 지나쳤지요. 아버지는 그리고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노래는 정덕수 시인의 〈한계령에서1〉이란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시인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견디다 못해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에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고향인 설악산을 찾은 길에 오래 전 자신이 떠나온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풀어낸 시입니다.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탈속(脫俗)의 메시지보다, 진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늙은 부모의 손짓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시에는 저마다 사연들이 다 있지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짧은 몇 구절 속에 녹여내거나 살짝 감춘 것이 시입니다. 〈법구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법구경〉 속 423개의 시(게송)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책은 '법구경 인연담'으로, '법구의석(法句義釋)'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 유명한 붓다고싸 스님이 지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시에 '옛날 옛적에…'하면서 사연이 다 따라붙으니 법구의석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구경을 사서 읽으면 좋은가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일단 그 두께를 보십시오. 얇으면 온전히 법구경 그 자체인 것이고, 아주 두꺼우면 법구경 인연담(법구의석)입니다. 얇은 법구경을 읽으셔도 좋고 두꺼운 법구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대행 스님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성 그 자체만이 자기의 선장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자기를 희생하며 참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저의 친한 친구도 죽고 못 살겠다고 우겨서 결혼하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서 긴 병 수발에 마음도 차츰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답변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을 더 잘 알고,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손이 제일 먼저 가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무리 자식 부모지간이라도 자기 아픈 거는 상대방이 진짜 다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이지 만약에 일 년만 넘어가 보세요. 불쌍하긴 불쌍하다고 하나 그건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믿을 게 없어요, 나밖에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밖엔 없습니다. 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변소엘 가도 같이, 언제나 같이해 주는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사랑? 참, 무슨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 그렇게 그런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잠시 잠깐 사랑한다고?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냐 이겁니다, 싫으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러는 게.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래도 자기한테 이익해야만이 택하지 해롭게만 돌아온다면 그건 택하지 않죠. 사랑하다가도 자기한테 앞으로 장래에 해로울 일이라면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일 년만 만약에 앓고 드러누웠어도 사랑은 멎어지죠. 따로,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몹쓸 병이 들었을 땐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은 그러지마는 속으론 그렇질 않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본래 죽고 사는 게 없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둘로 듣겠지마는 말을 하려니까 둘로 하는 겁니다. 왜? 그 부동한 자세의 능력으로써 바로 그 모든 거를 활용하고 움죽거리게 되니까 그게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삶을 보람 있게 살면서 이 육이 무너진대도 불과 법이 둘이 아니기에, 항상 나 아님이 없이 즐겁게 산다는 얘깁니다. 어느 것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도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도,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걸 자식이 또 들으면 섭섭할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자식도 일 년 이태만,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또 부모가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주는 게 효자고 효녀고, 그런 것뿐이죠. 빨리 죽어 주는 게 자식한테 바로 덜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이것이 소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일체 만물, 물질적이라는 것은 다 변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 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자기가 속아요? 아니, 천신만신 저거 해서 시중하고 뭐 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벌어다가 들입다 주고 이러고선 배신을 당하고. 그래 내쫓기지는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떠났으면 벌써 배신당하는 거지 뭐, 별수 있나요?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차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돌아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럭하면서 살죠. 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보다 나는 욕심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쪼금 사랑하다가 그렇게 치울 거라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도 조금 살다가 그냥 변질되고 없어질 물건이라면 차라리 물건으로 나오질 않겠다 이겁니다. 물건으로 나오더라도 아주 변함도 없고 남한테 모든 것을 이익을 줄 수 있고 눈요기도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 그런데 그거조차도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 주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저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여러분이 사는 대로 좇아서 그냥 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떤 땐 재미도 있어요.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야리야리한 사랑이나 그런 거, 고것을 갖다가 천 년이라고만 생각하면 편안하겠죠. 24시간 동안에 한번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그, 한 시간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24시간 동안. 고정되게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시간씩 참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이 왕자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 한 시간이 싸움으로 변할지도 모르죠, 사랑은커녕.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려면 나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가발전소에서 모든 거를 불을 켜서 방 안을 다 밝게 하면 눈이 컴컴하질 않아서 "여보! 여기 있으니 잡수우." 이럴 수도 있고, "얘! 여기 있으니 먹을 거 먹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방이 캄캄하면, 내가 불을 안 켜면 캄캄한 거죠. 방통이 다 캄캄한데, 전부 눈이 캄캄한데 뭐를 봐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겠어요? 나는 부처님처럼, 참, 위대한 큰스님들처럼 말을 못 해서 이렇게 마구 하지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구 해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이, 세상에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구, 세상에, 사랑들 한다고 그래 봤자 내가 보는 바에는, 기껏 그냥 털고 닦고 그냥 해 먹이고 해 주고 빨아 입히고 이래도, 그리고 또 남자들은 기껏 벌어다가 그 고생을 하고 손발을 널리고 이렇게 해서 벌어다 줬는데 말이죠, 여자가 씀씀이를 어떻게 고렇게 고렇게 쓸 때에 '아이구! 정말이지 이거는 너무하는군. 너무하는군, 모두.' 이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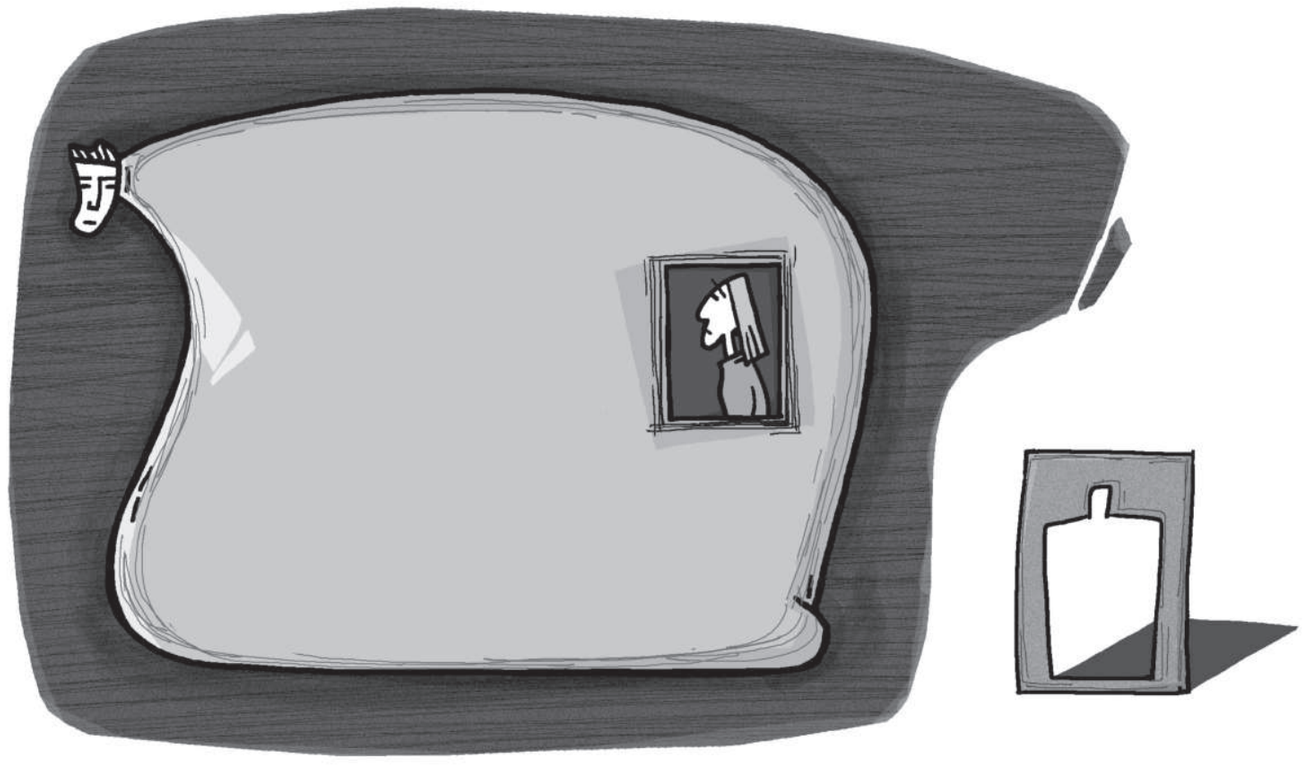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 걱정 하지 마시고 자기 앞길만 잘 보고 가세요

☞ 19면에서 계속

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개인,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죽어도 살아도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죽거리라도 얻어다가 같이, 숟갈 두 개를 꽂아 놓고 같이 먹을지언정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나는. 나 그렇게 미련하고 그런 반면에 그런 게 있단 얘기예요. 난 좋은 것도 부럽지 않아요. 단지 그 인간의 참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까짓 것 뭐, 거적을 쓰고 죽으나 좋은 공단 이불을 쓰고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일까요

질문 언젠가부터 몸이 계속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 보니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괴로운데 누가 이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일까요?

답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뭐, 책도 없고 적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깐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고 내일 가면 벌써 오늘 한 거는 잊어버려서 모르시겠지만 다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즉 말하자면 숙명통에 입력이 돼 돌아가죠.

이 마음 내는 것도 작년 마음 낸 거하고 올 마음 낸 거하고 둘이 아닙니다. 짝 붙으면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러게 불 한번 딱 치면 반짝하는 그러한 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냥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 맡기고, 거기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즉 말하자면 거기 내가 있으니깐 모든 게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지 내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죠, 해결이 나고.

그러니까 팔자 운명 타령은, 인제 우리가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쫓고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좀 벗어납시다, 네? 고런 관념, 고런 관습, 그 운명이다 팔자다, 무슨 업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 줘 가지고 그게 습이 돼 가지곤, 나는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걸 만들어 줘서 안 됩니다. 왜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멀쩡한 사람에게 너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의 가정을 말이에요, 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이다 팔자다 하는 것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붙을 자리가 없다. 또는 고도 없다. 고·집·멸·도 이게 사제법이 있습니다만 '고' 하나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착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지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여러분의 그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 바로 법좌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 자기 법좌를 믿으라는데, 자기 본래 자성불을 믿으라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글쎄,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오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데는 같이 가 주지 않아요. 사랑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돈도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련?"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녔니?" 그러고 안 가요.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해도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면 "네, 묘지까지만 같이 가서 배웅하겠습니다." 또는 "화장터밖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친구입니까, 그게? 영원한 친구는 여러분의 지금 몸을 모두 형성시켜서 가져 나온 장본인, 영원한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법좌, 그 불성 그 자체만이 자기 선장이에요. 그거를 꼭 믿으세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육신을 자기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와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고양일 딱 들고선 그냥 목을 딱 쳤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말을 안 하면 치고 말을, 대답을 하면 안 친다." 했는데 영 대답을 못 하니까 고양이 목을 쳤거든요. 예전에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하죠. 아이, 어느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스님에게 아까 있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짚세기 신었던 거를 머리 위에 이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리때 하나 들면,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네? 대장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턱 믿고 아무 소리 없이 나가거든. 그 뜻을 모르시겠죠? 말로 해 줘서는 아니 되니 여러분의 법좌를 진짜로 믿으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그저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하면서 그 만 가지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말에 끄달리지 마시고 모든 병고와 가난과 우환, 또 성공과 그런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서 해결해.'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나와 남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리때 하나 들면
>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관하는데 탁 놔지지 않아요

질문 열심히 관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하던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인공만을 붙잡고 매달려 보지만 상대에 대한 원망과 걱정이 계속 올라와 탁 놔지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댁에도 마음이 약해서 남의 말만 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 사람의 말을 아주 100% 믿었다기보다도 믿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깐 남한테 당하지 않는 것도 그 부처님 법입니다.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고 안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지마는 자기가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벌써 그렇게 넣어야죠. '이게 당하지 않게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

물어보더라도 자기한테, 내면의 자기한테 물어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럼 벌써 그 사람하고 하기 싫게 돼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가는데 이 길이 가기 싫어서 저 길로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깐 사기도 안 당하고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담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삼자를 지금 아주 떡 먹듯이 믿으면 안 되죠. 믿기는 하되, 사랑을 하되 속으로 사랑하고 그저 겉으로는 그 사람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네들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이 돼 가지고 소근소근하는 까닭에 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깐 요담에 그럭하지 마시고 항상 그것도 아귀를 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해 놓고, 뒤에도 회향이 제일 어렵죠. 이게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가서 회향할 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 회향 끄트머리에 할 것까지 결정을 이렇게 짓고 하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말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닌지요

질문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근본 자리를 찾기보다 주로 자기 남편,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하는 걸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복 신앙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요.

답변 기복이라기보다는요, 댁이 만약에 늙어서 죽을 때에 남의 걱정 하게 되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지금 급해서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싸운다,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거기 참섭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겠어요?

또 한 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멍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건데 댁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당신이 남의 걱정 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죽은 저승엘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 걱정 하지 마시고 자기 앞길만 잘 보고 가세요.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⑯ 자기혐오로부터의 탈피

후회 아닌 참회가 나를 바꾼다

부부사이 문제로 상담실을 찾은 민희 씨(가명)는 눈에 띄는 미인이었다. 날씬한 몸매와 큰 키, 크고 예쁜 눈, 피부도 매끈한 그녀에게서 처음 들은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였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유치원생이었다. 넉넉한 가정 경제에 외벌이로 지내도 문제가 없는 부유한 가정. 민희 씨의 삶은 겉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민희 씨는 상담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제가 분명 새벽에 나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더니 자리를 다 뺏기고 안 좋은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휴일이라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많이들 오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너무 답답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뭔가 계획을 하면 그 부분이 이뤄질 때까지 순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급한 일로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공원에 가서 자리를 잡도록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였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 사람.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필요 없고 버리는 게 낫다"는 신념이었다. 그녀는 남편, 아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동생까지 부족한 점을 찾아 말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투사'가 그녀의 중요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에게 있는 마음이 남에게 있다고 믿는 것. 남을 고쳐야 한다고 분노하며 원망을 쏟아내지만 사실 자신을 대하는 마음인 것이다. 자신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상담을 하며 타인과 가족에게 돌려진 시선을 스스로에게 되돌리기 시작했다.

"가족을 평가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네요.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가족들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눈물을 왈칵 쏟았다.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가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혼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저는 언제나 나쁜 아이였어요. 야단맞아야 하는 나쁜 아이요."

언제나 주눅 들어 있어야 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항상 제대로 해야 하고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삶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목소리는 서른이 넘은 그녀에게 여전히 남아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조종하고 있었다.

후회의 주된 감정 성냄, 혐오로 악화
원망으로 힘들다면 '자비관' 기억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그녀는 끊임없는 '자기혐오'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자기혐오'는 얼마나 쓴 단어인가. 삶은 살아가며 실수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실수라며 다독이고, 쓰지만 삼키듯 자신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렇게 한 단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반성이다. 자기혐오와 반성은 분명 다르다.

불교에서는 후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때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이라며 과거의 사건을 곱씹어 반추하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후회다. 이 때 마음에 있는 주된 감정은 사실 '성냄'이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원망까지 담겨있다. 이것이 발전하면 자기혐오의 시작점이 된다.

후회 대신 불교는 '참회'를 강조한다. 참회는 스스로를 맑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이로운 사람이 될 것을 서원하는 것이다. 즉 계(戒)를 스스로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청정한 삶을 위한 노력이다. 불교의 참회는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과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을 더한 행동이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불선(不善)으로 간주하지만 참회에 대해서는 번뇌를 태우는 보배라고 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을 보면 참회에 대해 "번뇌의 땔감을 태우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참회는 능히 사선의 낙(樂)을 얻고, 마니보주를 내리게 하며, 능히 수명을 금강과 같이 늘리고…참회는 능히 가장 보배로운 장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한다.

후회와 참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사랑이다. 후회는 원망과 분노로 시작하지만 참회는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한다. 자기 스스로와 남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어 고통스럽다면 '자비관'을 기억하자.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비관의 순서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⑰ 발목의 습관성 염좌

'그냥 넘어졌네'라고 넘기지 마세요

일상적인 활동 중에 발이 문턱이나 길가의 울퉁불퉁한 부분에 걸려 접지르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좀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 발목 골절로 이어져서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목 인대 손상은 항상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발목 인대 손상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인대의 미세 손상(흔히 인대가 늘어났다고 표현)이며, 2단계는 인대의 부분 파열,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구분합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나 재활의 시기, 정도가 결정됩니다. 손상의 정도에 다르겠지만 인대 기능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달 정도만 지나더라도 통증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인대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이 다 회복되지 않는 기간이 1~2달 정도 있을 수 있고, 머리 속에서는 발목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대가 다 회복하지 못한 이 시기에 또다시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몇 번 반복된다면 인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시 다치게 되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을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발목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습관성 염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의 습관성 염좌'는 말 그대로 반복적인 발목 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대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발목의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입니다. 발목의 습관성 염좌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은 일상생활에 거슬리며, 운동 또는 일상 활동 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반복적인 부상으로 인해 발목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게 되면, 관절에서 정강이뼈와 발목 거골 뼈가 서로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이런 자극의 누적으로 발목 연골의 손상으로 이어져 이른 나이에 발목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

통증 없어도 발목 인대 호전까지 3개월여 소요
회복 없이 손상 반복되면 발목 인대 기능 저하
발목 관절염 이어져…운동·보존치료 병행돼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우선,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발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둘러싼 근육들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발목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여 발목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활동 시에는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발목을 보호하고, 너무 과도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경우, 발목 습관성 염좌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휴식과 얼음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압박과 높이 올려놓음을 통해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발목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대를 봉합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부터,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봉합사를 관절 내부에 설치하는 방법이 흔히 이루어지며, 수술 이후에도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인대를 이식하여 재건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발목 강화 재활운동 역시 수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발목 불안정성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다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다치다보니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다쳤던 기억과 큰 문제없이 회복된 기억이 많이 환자분들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목의 안정성은 우리의 일상생활 및 운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 다양한 운동 및 활동 수행 시 부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습관성 염좌와 같은 문제는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동 및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영경
거인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전법 일기

남다른 부처님 인연 교법사로 이어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이 매우 깊었다.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독실한 불자셨고, 특히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하고 조계사합창단을 지휘하셨을 정도로 불교와 가까웠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3살 때부터 조계사를 놀이터 가듯이 갔던 기억이 난다.

남달리 종교성이 강하고 철학적이었던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주와 생명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 때에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며 명상을 수행했다. 불교 교리는 〈불광〉 잡지로 입문했고, 김정빈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으로 위빠사나를 해보았다. 고등학교를 불교종립학교로 진학한 뒤에는 더 불교에 빠져들었다. 학교 교법사님들의 종교 수업을 통해 불교를 더 명확하게 학습했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의 예절과 문화를 습의했다. 여름 수련회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고등학교 친구가 나보고 미래의 법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시절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을 불교로 다스리고자 노력했다. 결국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 접근에 회의가 들었고,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대부고에서의 방과 후 강사 경험을 하고, 결국 내가 갈 곳은 교육현장이란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일반 학교에서 도덕 윤리교사로 일한지 약 7년 정도가 흘렀을 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바로 미국 보스턴 문수사에서 국제포교사를 뽑는 것이었다. 해외 포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과감하게 교편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의 한인 사찰에서 현지인들과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불교 명상을 지도했다. 그곳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할 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난 부처님께 내가 가야할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를 했고, 내 안의 부처님께선 한국에 돌아가 법을 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법사였던 것이다. 우선 한국에 돌아와 미국서 경험한 영어를 살려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 담당 역할을 맡아 일했다. 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불교와 철학 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금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으로 이끌었다. 때마침 불교재단 광동학원에서 도덕윤리 교사이면서 교법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나는 임용 시험을 거쳐 결국 불교종립 중학교의 정식 교법사가 되었다. 여러 길을 거쳐 다채로운 경험을 한 끝에 부처님 법을 학교 전선에서 전하는 법사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범준
광동중 교법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⑤ 의료기술에 대하여

질병의 인연에 대해 고찰하라

현대과학에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바이오테크놀로지(BT)는 최첨단 분야에 해당하며 제행무상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최종 적용은 욕망과 연결되며 의술과 진료의 합성어인 의료와 직결된다. 그만큼 의료현장은 생명을 중심에 두고 질병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해부생리학은 의학의 기초로서, 해부학은 정상적 형태를 학습하는 분야이며, 생리학은 해부학적 형태가 지니는 올바른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병리학 과목에서 다루게 된다. 생명(生) 현상의 이치(理)를 검토하는 생리학(生理學)에서 벗어날 경우, 질병(病)에 대한 이론(理)이라는 측면은 병리학(病理學)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질병'을 뜻하는 'disease'는 쉽지(ease) 않다(dis)는 뜻이다. 즉 정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쉽지 않음이라는 상태는 질병으로 규정된다. 또 질서(order)에서 이탈된(dis) 상태인 'disorder' 역시 질환을 뜻한다.

한자에서는 질병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상태(疒)를 기본으로 한다. 질(疾)은 화살(矢)처럼 그 병세의 진행이 빠른 것을, 또는 화살 같은 뾰족한 것에 의한 상처로 통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병(病)은 질병의 진행에 따른 발열(丙)의 증상을 지시하는 말이다. 환(患)이란 꿰뚫리는(串) 통증으로 마음(心)이 아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질환병(疾患病)은 통증, 발열, 감염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말한다. 이는 현대 병리학에서 질병의 일차적 증상인 염증을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명 다루는 의학기술 빠르게 변화 중
사람 살리는 의료, 종교 가르침과 유사
기술에 매몰되면 生의 이치 놓치게 돼

생명 존중의 정신은 불살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현장의 정신이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종교는 상호 교섭의 접점을 지닌다. 물론 의료와 종교에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 국한되는가 여부의 차이는 있다.

〈불설불의경(佛說佛醫經)〉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질병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래 앉았기만 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 둘째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는 것, 셋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넷째 피로가 극도에 달하는 것, 다섯째 마음껏 음탕하게 노는 것, 여섯째 성을 내는 것, 일곱째 대변을 참는 것, 여덟째 소변을 참는 것, 아홉째 상풍(上風)을 제지하는 것, 열째 하풍(下風)을 제지하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인연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T17, p.737b14–18)

불전(佛典)이 알려주는 질병의 인연을 생각해 본다. 불교적 입장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기검진과 규칙적 운동,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등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의 기본을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적 상태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며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연기적 흐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적 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행위는 생명의 이치(生理)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문화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요즘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MZ세대 사이에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연등회 등의 현장에서도 20~30대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였다.

여기에는 '뉴진 스님'이라는 부캐로 EDM 공연 등을 진행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인기도 한 몫했다. 승복 착용을 둘러싼 논쟁과 말레이시아 불교계의 입국 금지 조처 등 잡음이 들리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힙한 불교'라는 현재의 유행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는 2030세대의 버킷리스트가 됐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찰음식은 베지터리안들의 대표적인 최애 음식으로 발돋움했다.

그래서인지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명작' 불교 웹툰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수상작인 공명 작가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비롯해 고사리박사 작가의 '극락왕생', 한혜연 작가의 '세화, 가는 길'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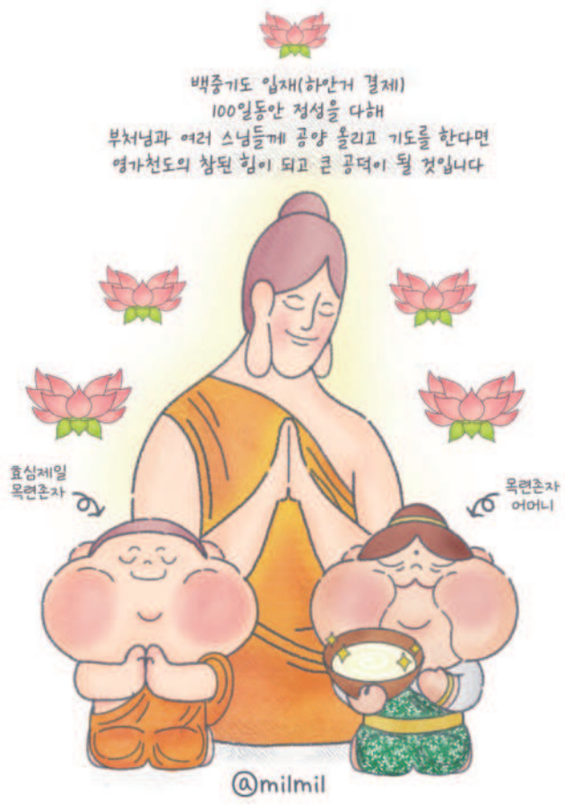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시대에 맞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작가, 크리에이터 등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계의 인프라가 다른 종교에 비해 작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웹툰의 경우 기독교계는 '에끌툰'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독교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중 실제 몇몇 작품들은 상업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작활동이 생업인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장(場)이 필요하다. 웹툰 공모전이나 국악 콩쿨 등을 통한 신인 발굴부터 창작 플랫폼 구축 등 소위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불교계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잘 구축된 '문화 생태계'는 불교 전법포교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뉴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조계종, 싱크탱크 인력 양성부터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종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이른바 집행부 '3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의 3원 체제에서는 각 원마다 연구소가 있다. 총무원에는 백년대계본부 산하에 불교사회연구소가, 교육원에는 불학연구소가, 그리고 포교원에는 포교연구실이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불학연구소는 선·교·율을 연구하는 기능을, 포교연구소는 포교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동안 조계종 산하 연구소들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금번 3원 통합을 맞이해 종단 연구소들의 통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도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think tank)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연구소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연구 기능을 통합해 종합적 종책 개발을 하는 연구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원의 연구소들은 설립 이후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연구소 간의 독자성 내지 단절성으로 인하여 불교계 현안과 대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종책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출범하는 통합된 종단 연구소는 탈종교화와 종교인구 감소 등 불교 교단의 존속과 직결

3원 통합 더불어 연구기관도 통합
학문·현장 겸비 전문 인력 필요
종단서 종무직 선발해 진학시켜야

되는 종교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종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단 연구소가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인력의 증원과 연구 업무 환경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조계종의 불교사회연구소,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의 연구 업무는 전문 연구 인력보다는 일반직 종무원이 행정 업무와 더불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교 종단의 종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인력은 학문적 능력과 현장 전문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직 종무원이 연구 업무를 병행하는 관례를 탈피하여 불교계 현장 경험이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연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우수 인력을 구할 수 없다면, 종단 인력 개발 차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을 선발해 대학원에 진학시킨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단의 연구 업무 풍토는 담당 연구원이 특정 과제를 전담하여 직접 연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연구자에게 연구 과제를 의뢰하여 제출받는 방식이다. 종단 연구소의 연구 업무 담당자는 연구를 전담하기보다는 행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종단의 업무 관행이 연구는 행정의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는 학문적 능력과 현장적 능력을 구비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영입하더라도, 결국 그를 떠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종단 연구 업무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소 내에서 연구 업무가 행정 업무의 보조가 아닌 핵심 업무로 자리를 잡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佛經, 세계인쇄사 이정표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줄임말인 직지(直指)는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제작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대 주한프랑스공사인 콜랭 드 블랑시가 1880~1890년 사이에 국내에서 구매해 프랑스로 가져간 이래로 현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당시 적은 금액으로 입수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으로 손꼽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인쇄역사협회(American Printing History Association)의 홈페이지를 보면 인쇄역사 연표가 "1239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주석이 있는 깨달음의 노래'이다"라고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이가 1239년에 발간한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6종의 책이 전해진다. 이 중 '삼성본'은 1984년에 보물 제758-1호 지정됐고, 공인본(경남 양산 소재)은 2012년에 목판본의 후쇄본이라 하여 보물 제758-2호 지정됐다. 그러나 공인본이 목판본인지 금속활자본인지를 놓고 학계는 오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문화유산회복재단 학술위원 유우식 박사(웨이퍼마스터스 대표)가 국제학술지인 〈MDPI Heritage〉에 공인본과 이본(異本)의 차이점을 분석한 논문을 투고해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으로 발표됐다. 여기에 미국인쇄역사협회가 이를 공

유우식 '남명증도가' 연구, 세계 주목
韓불경들, 最古 금속활자본 논쟁 야기

식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향후 공인본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서지학계는 여전히 목판본이라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우식 박사의 연구 논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국내 서지학계에서는 수차례 게재 불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최고(最古)의 목판본이라 평가받는 불국사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인쇄역사 연표에 누락돼 있다. 국내 서지학계와 정부는 이런 인쇄 역사를 알리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은 기록의 나라이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한국의 기록유산을 봐도 알 수 있다. 2024년 현재 등재 건수는 18건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5위이다.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중국(15건), 이란(12건), 인도(10건) 순이고 일본(8건)이 뒤를 따른다. '직지'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지만 기록유산 등재는 한국이 했다.

1901년,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소개한 모리스 꾸랑은 〈조선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 정신의 명석함은 아름다운 도서 인쇄에서,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자모(字母)의 완성도에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쇄 활자 구상에서 드러난다. 극동 문화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입지가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 같은 평가의 근저에는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속활자본 '증도가'와 '직지'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하면 '직지가 불교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제라도 불교계는 한국 정신의 명석함을 이끈 불서(佛書)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가 시급하다.

社 說

사리 환수, 회암사지 보존 활성화 계기로

경기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의 왕사(王寺)'라고 불렸던 조선 최대 사찰이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를 매우 아꼈는데, 사찰 불사가 있을 때마다 신하를 보내 살피도록 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원인모를 화재로 사찰이 전소된 뒤 폐사됐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고 해 명종이 말렸다'는 기록이 남았는데, 회암사의 폐사가 '숭유억불'이라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가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전각이 전소되고 석불 등의 훼불이 뒤따르면서 창건주 지공 선사와 제자 나옹 선사의 사리, 석가여래·가섭불·정광불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구도 일제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 이후 사리구는 미국 보스톤박물관이 사들이며 박물관 소장품이 됐다.

그로부터 100년, 3여래 2조사의 사리가 다시 한국의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왔다. 이를 기념하는 다례재가 5월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봉행됐다. 지공과 나옹의 법연이 다시 한반도에 나툰 것이다. 조선시대는 분명 숭유억불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왕실과 민간을 중심으로 불교는 면면이 이어지며, 한국 정신문화의 한축을 형성해왔다. 양주 회암사지는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도량이다. 이번 사리의 환수가 조선왕실 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등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대로 '선명상 센터' 건립을 통한 사지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출범에 부쳐

'문화재'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불교문화유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문화재'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법 제정 62년 만에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바뀌게 됐다. 5월 17일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청의 조직도 전면적으로 변화했다.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 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뒀다.

또한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 관련해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불교의 경우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는 크다. 조계종과 태고종 등 주요 종단들의 잇달아 환영 논평을 낸 이유도 여기 있다. 국가유산청과 변화한 국가유산 정책이 전통문화 가치를 국민들에게 향유토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